

2020 국별 진출전략

스페인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정부와 민간기업, 브렉시트에 본격 대응	4
나. 경제성장 하향세 진입, 실업률 하락과 관광업 활황이 호재	4
다. 유럽 2위의 자동차 제조국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대비	5
라.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결합한 'Industry 4.0' 추진	5
마.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5G 등 스마트국토 정책 시행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8
다. 산업 환경	8
라. 정책·규제 환경	9
2. 시장 분석	11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1
나. 교역	12
다. 투자유치 및 진출	16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9
가. 교역	19
나. 투자	20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2
III. 진출전략	23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3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4
3. 한-스페인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3
4. 진출 시 유의사항	40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41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3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4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6
부 록	
對스페인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7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스페인 경제성장 전망 : 하락

- 스페인 중앙은행에서는 2020년 스페인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
 - 성장 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EU 평균(1.5%)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
- (호재요인) 기업 투자 확대, 관광 산업 활황, 실업률 지속 하락
 -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여력 확대
 - 천혜의 자연유산과 풍부한 문화유적, 좋은 날씨와 음식 등으로 관광 산업 활황
 - 스페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악재요인) 정부 구성 지연,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가계 소비 위축
 - 하드 브렉시트 리스크로 교역 및 투자 전반에 걸쳐 불안 요인 존재
 - 4월 총선 후 여야 의견차로 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경제 정책 불확실성 증대
 - 경제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심리도 위축

* 민간소비 성장세 : 2014~2018년 평균 2.8%/ 2019년 1.0%, 2020년 1.3% 예상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46.6	46.4	46.4	46.4	46.4	46.4	46.7	46.9
명목GDP	십억 달러	1,362.2	1,379.1	1,199.7	1,238.0	1,317.0	1,425.9	1,429.2	1,497.1
1인당 명목GDP	달러	29,238	29,687	25,850	26,682	28,378	30,697	30,631	31,944
실질성장률	%	-1.7	1.4	3.7	3.2	3.0	2.5	2.0	1.7
실업률	%	26.1	24.4	22.0	19.7	17.2	15.3	14.2	14.1
소비자물가상승률	%	1.4	-0.2	-0.5	-0.2	1.9	1.7	1.2	1.6
재정수지(GDP대비)	%	-2.3	-1.9	-2.5	-2.9	-2.6	-2.7	-2.6	-2.8
총수출	백만 달러	313,034	319,654	276,961	281,712	312,843	336,796	n/a	n/a
(對韓 수출)	"	1,142	2,633	2,049	1,799	1,963	2,365	n/a	n/a
총수입	"	335,143	352,819	304,736	302,387	340,851	376,638	n/a	n/a
(對韓 수입)	"	2,125	2,202	2,546	2,536	3,832	3,703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22,108	-33,165	-27,774	-20,675	-28,007	-39,842	n/a	n/a
경상수지	"	20,711	14,906	13,934	27,939	24,287	11,086	n/a	n/a
환율(연평균)	현지국/US\$	0.753	0.754	0.902	0.904	0.887	0.847	n/a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82	391	338	360	340	357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73	280	256	262	264	270	n/a	n/a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자료 : IMF, EU 집행위, Datacomex, OECD, 스페인중앙은행(Banco Espana)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정부와 민간기업, 브렉시트에 본격 대응
- 경제성장 하향세 진입, 실업률 하락과 관광업 활황은 호재
- 유럽 2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대비
-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결합한 'Industry 4.0' 추진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5G 등 스마트국토 정책 시행

가. 정부와 민간기업, 브렉시트에 본격 대응

 스페인 정부와 민간 기업, 브렉시트 대비에 분주

-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취임 이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스페인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다방면으로 대비하고 있음
- 스페인 입장에서 영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Top 5중 하나로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며 그 외 투자 진출, 관광객 등의 교류도 많은 편
- 컨설팅 기업인 Oliver Wayman에 따르면, 스페인은 브렉시트로 인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로 타격이 큰 국가로 예상되고 있는데 경제적 비용이나, 손해는 연간 26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 이후 스페인의 영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스페인 기업의 수입 대체 수요에 적극 대응 필요

나. 경제성장 하향세 진입, 실업률 하락과 관광업 활황이 호재

 2020년 스페인 경제성장률 하락, 그러나 EU 평균 경제성장률 비교 높을 것으로 전망

- 스페인 경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 후반에서 3% 후반 사이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이는 가계소비 확대와 고강도 개혁에서 기인
- 2020년에는 1%대까지 성장률이 하락(1.7%)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U 경제성장률 평균(1.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일 것으로 전망
- 실업률 하락과 관광업 활황이 경제에 호재로 작용 예상
 - 스페인의 고질적 문제인 실업률은 2013년 26%까지 치솟았으나, 2020년에는 14%까지 떨어져 7년 새 절반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스페인의 관광 경쟁력은 세계 1위로 연간 약 8,000만 명이 스페인을 방문, 스페인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작용
- o 스페인 경제성장률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소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비재 기업은 고가보다 가성비 제품 주력 필요

다. 유럽 2위의 자동차 제조국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대비

스페인,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중

- o 스페인은 유럽 2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9개 자동차 회사에서 17개 공장 운영
 - * 9개 기업 : Seat-Audi, PSA, Ford, Opel, Volkswagen, Renault, Mercedes, Nissan, Iveco
- o 2018년 연료별 차량 판매 추이를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72% (약 11만대) 상승한 반면, 디젤은 20.7%(약 48만대) 감소
- o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전기차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스페인에서는 전기 상용차 5개 모델이 생산 중이며 승용차도 곧 생산 예정
 - 프랑스 회사 PSA, 스페인 토종 회사 SEAT 등에서 전기 승용차 출시 예고
- o 한국 자동차 기업도 전기차 모델 프로모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전기차 부품이나, 전기 충전소 등도 성장이 예상되므로 스페인 기업과의 공동 R&D, 조인트벤처 설립 등 다양한 협력 방식 모색 필요

라.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결합한 'Industry 4.0' 추진

스페인 정부, "Connected Industry 4.0" 정책 수립

- o 스페인 정부는 ICT 산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onnected Industry 4.0' 정책 수립
- o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골자로 하며, 제조업의 부가가치 개선, 일자리 창출, 국내기업 주도 디지털 솔루션 개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수출 확대 등 목표
- o 대형 은행인 산탄데르(Banco Santander), 세계 3위 통신회사 텔레포니카(Telefónica), IT 서비스 및 방위 산업 전문기업 인드라(Indra) 등 참여

마.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5G 등 스마트국토 정책 시행

스페인 정부, “2017~2020년 스마트국토 계획” 정책 수립

- 스페인 정부는 기존의 ‘2015~2017년 스마트시티 계획’을 업그레이드한 ‘2017~2020년 스마트 국토 계획’을 발표했으며, 총 1억 7,000만 유로의 예산 편성
- 스페인은 농업과 관광업이 발달해 있어 IT 기술과 이들 농업 및 관광업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쏟고 있음
- 한편 스페인 정부는 스마트국토 개발의 핵심 인프라가 될 5G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로드맵에 따른 타임라인은 1)2017년 공공연구, 5G 활성화 계획 발표 2)2018년 주파수 1차 경매, 파일럿 프로젝트 공모 3)2019~2020년 파일럿 프로젝트 런칭, 주파수 2차 경매 4)2020년 5G 상용화로 이루어져 있음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총선 실시 가능성 높음
- (정치) 정부와 민간기업, 브렉시트 대비에 분주
- (경제) 경제성장 하향세 진입하나, EU 평균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
- (경제) 실업률 하락과 관광업 활황이 호재
- (산업) 유럽 2위의 자동차 제조국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대비 중
- (산업)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결합한 'Industry 4.0' 추진
- (정책)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5G 등 스마트국토 정책 시행
- (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개혁 추진
- (정책) 화석연료 탈피 중 확대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 환경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총선 실시 가능성 부상

- 2019년 4월 총선에서 사회노동당(PSOE)이 하원 총 350석 중 123석을 차지하여 승리를 거뒀으나, 의석수 과반 확보는 실패
 - 사회노동당 산체스 총리의 신임안 통과 및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야권, 특히 급진좌파인 우니도스 포데모스(United Podemos)와 연정 협상 중
- 산체스 총리 신임안이 두 차례 부결됨에 따라 올해 11월 재총선 가능성 부상
 - 9월 23일까지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11월 10일 재총선 실시 예정

정부와 민간기업, 브렉시트 대비에 분주

- 스페인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 87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통상 관계는 물론 지브랄타 영토 문제까지 폭넓게 대비 중
 -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지브랄타는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도시이나, 영국이 점령하고 있어 스페인에서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해 온 바 있음
- 스페인 기업은 2019년 하반기 경영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꼽은 바 있으며 영국에서의 활동 축소, 영국 법인 이동 등을 고려 중

- 스페인 최대 은행인 Santander의 경우 영국 지점을 20% 줄이기로 결정
- 대형 건설기업 Ferrovial은 영국 법인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전 예정
- 에너지 기업 Iberdrola는 영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분 40%를 호주 회사에 인수

나. 경제 환경

경제성장 폭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EU 평균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

-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EU 경제성장률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일 것으로 전망
 - 스페인 GDP 성장률 전망(EU 집행위, 스페인 중앙은행) : 2019년(2.3%), 2020년(1.7)
 - EU 회원국 GDP 성장률 전망(EU 집행위) : 2019년(1.2%), 2020년(1.5%)

실업률 하락과 관광업 활황이 경제에 호재로 작용 예상

- 스페인의 실업률은 2013년 26%에서 2020년에는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말로 예정된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승리하든지, 실업률 하락세를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 스페인 GDP에서 관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업·운송·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로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다. 산업 환경

유럽 2위의 자동차 제조국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혁명 대비 중

- 스페인은 2018년 약 282만 대의 자동차를 제조해 독일(약 512만 대)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기록
 - 현재 스페인에는 8개의 자동차 기업이 17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임
 - * 8개 기업 : Mercedes-Benz, Iveco, Volkswagen, SEAT, Ford, Renault, Groupe PSA, Nissan
- 전기상용차에 이어 전기 승용차 제조 및 출시 예정
 - 스페인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유럽 국가에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맞춰 스페인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생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
 - * 작년 스페인 제조 자동차의 81.7%가 수출되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유럽으로 수출
- 현재 전기 상용차 5개 모델이 생산 중이며 전기 승용차는 곧 생산 예상
 - * 전기 상용차 모델명 : Citroën Berlingo(Groupe PSA), Peugeot Rifter(Groupe PSA), Mercedes Vito 2018(Mercedes-Benz), Nissan NV 2000(Nissan), Opel Mokka X(Groupe PSA)

- 아직 스페인에는 전기 승용차 공장이 없으나, 2020년부터 100%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Groupe PSA가 첫 주자가 될 것으로 보임
- 스페인 토종 자동차 브랜드인 SEAT도 전기 승용차 개발 중에 있으며 첫 100% 전기차인 Mii electric은 2020년 출시 예정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결합한 'Industry 4.0' 추진

- 스페인 정부는 ICT 산업 육성과 제조업 선진화를 기초로 한 4차 산업혁명 준비의 일환으로 Connected Industry 4.0 정책 수립
 - 제조업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제조업의 부가가치 개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국내기업 주도 디지털 솔루션 개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육성 목표
 - * 대형 은행인 산탄데르(Banco Santander), 세계 3위 통신회사 텔레포니카(Telefónica), IT 서비스 및 방위 산업 전문기업 인드라(Indra) 등 참여
 - 디지털화 지식 전수, 기술 개발 지원, 다양한 업계 간 협업 촉진 등
- 매년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을 통해 'Industry 4.0' 독려
 - 2016년부터 산업 연구 프로젝트, 실험 개발 프로젝트, 조직 및 프로세스 혁신 프로젝트 등 기업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하고 있음
 - 수혜 대상자는 제조 기업이며, 2019년에는 총 5,000만 유로 지원 예정
 - 미래의 제조업 혁명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경쟁 수단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스페인만의 제조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라. 정책·규제 환경

스마트시티, 스마트관광, 5G 등 스마트국토 정책 시행

- 스페인 정부는 기존의 '2015~2017년 스마트시티 계획'을 업그레이드한 '2017~2020년 스마트국토 계획'을 발표했으며, 총 1억7,000만 유로의 예산 편성
 - 도시의 스마트화를 넘어 농촌 개발, 관광 인프라 개선 등으로 지원 반경 확대
-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에게 우수한 공공서비스 제공, 노후 인프라 개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 목표
- 스페인 정부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식품, 삼림, 농촌 지역 디지털화 전략(La Estrategia de digitalización del sector agroalimentario y forestal y del medio rural)”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스페인은 연간 약 8,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으로,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들과 거주민들의 니즈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필요

- 스페인은 2017년 7월, 5G 기술 개발에 있어 유럽의 선두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8~2020년 5G 활성화 계획(Plan Nacional 5G 2018~2020년)을 수립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개혁 추진

- 스페인 정부는 ‘2021~2030년 국가 에너지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신재생 비중 확대, 에너지 효율성 확대 추진
- 2030년까지 대기오염가스 21% 감축(1990년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의 42%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 에너지 효율성 39.6% 증대가 목표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효율성 확대, 환경개선 효과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2 시장 분석

- (규모) GDP와 인구 기준, 유럽 5위의 대형시장
- (플랫폼) 유럽, 중남미, 북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 (산업) 자동차, 건설,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특히 발달
- (교역) 수출, 수입 모두 유럽 역내 국가와의 거래가 두드러짐
- (투자) 안정적 성장세와 신용등급 상승으로 투자유치는 증가, 투자진출은 감소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GDP와 인구수 기준 유럽 5위의 대형시장

- 스페인은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에서는 5위의 경제 규모 보유
 - 스페인은 인구 기준으로도 유럽 5위(약 4,600만)로 내수시장 규모가 큰 편
 - 한편 연간 관광객이 약 8천만 명에 달하며 관광수익만 500억 유로에 달함
 -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스페인은 EU 4대 경제 강국이 될 전망

유럽 경제순위(GDP 기준)

순위	국가	GDP(US\$ 백만)	인구(백만 명)
1	독일	3,963,880	82,886
2	영국	2,829,163	66,435
3	프랑스	2,761,633	64,725
4	이탈리아	2,025,866	60,484
5	스페인	1,429,140	46,449

자료 : IMF(2018년 기준)

유럽, 중남미, 북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럽과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
 - 2019년 상반기 기준 스페인의 대(對)유럽 누적 투자액은 약 4,315억 유로로 전체의 약 56%
 - 2019년 상반기 기준, 유럽의 대(對)스페인 누적 투자액은 약 3,857억 유로로 전체의 43%
- 스페인의 주요 기업들은 역사, 문화, 언어적 이점을 살려 중남미에 진출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스페인 기업과의 중남미 동반진출 구상 필요
 - 스페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중남미 투자국(스페인기업협회, CEOE기준)
 - 대(對)중남미 누적 투자액은 약 2,2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 해외 투자 중 약 28% 해당

자동차, 건설,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특히 발달

- (자동차)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282백만 대)이자 5위의 자동차 소비국(132만대)
 - 유럽, 미국, 일본의 9개 자동차 제조사들이 17개의 생산 기지 운영
 - * 9개 자동차 제조사 : Seat-Audi, PSA, Ford, Opel, VW, Renault, Mercedes, Nissan, Iveco
- (건설) 스페인 전체 GDP의 약 5.8%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 세계 250대 건설사 중 11개사가 스페인계 기업(2017년 ENR지 선정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준)
- (신재생에너지) Gamesa, Iberdrola, Acciona 등 풍력터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운영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보유

나. 교역

2019년 들어 수출, 수입 모두 증가세 다소 주춤

- 2019년 상반기 기준 수출, 수입 모두 1%대 성장에 그침
 - 2017년, 2018년에는 경기 상승에 따른 소비 회복 및 제조업 활황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
 - 2019년 상반기에는 경기 상승폭이 한풀 꺾임에 따라 수출입도 소폭 증가

스페인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교역	527,814	0.6	578,995	9.7	603,888	4.3	309,528	1.7
수출	254,530	1.9	277,125	8.9	285,024	2.9	147,428	1.7
수입	273,284	-0.5	301,870	10.5	318,864	5.6	162,118	1.6
수지	-18,754	-24.9	-24,744	-31.9	-33,840	-36.8	-14,712	-0.9

자료 : Datacomex

- 품목별 수출을 보면, 생산재, 중간재 등 기업용 수출이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폭이 낮은 편
- 품목별 수입은 내구성, 비내구성 소비재 증가율이 높은 편이나, 자동차 및 오토바이는 수입 하락세를 기록

스페인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18년(1~12월)		2019년(1~6월)		동기 대비 증감률(%)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간재	70,533	72,332	36,703	38,193	2.9	4.4
생산재	56,981	65,840	30,153	34,516	6.7	4.5
식품·음료·담배	45,877	35,059	24,646	17,084	3.5	-2.1
자동차·오토바이	44,490	40,138	23,356	21,418	-5.7	-2.5
비내구성 소비자재	28,416	36,766	14,025	18,083	0.3	4.5
에너지	22,581	47,713	10,514	22,639	2.5	0.6
원자재	7,697	11,558	3,834	5,312	-4.2	-10.9
내구성 소비자재	4,531	8,269	2,233	4,239	0.6	4.5
기타	3,918	1,189	1,945	634	0.3	0.3
합계	285,024	318,864	149,428	162,118	1.7	1.6

자료 : Datacomex

수출, 수입 모두 유럽 역내국 비중이 높은 편

- 대부분의 스페인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 장벽과 환율 부담이 없는데다 기술력도 뛰어난 유럽 역내 기업과의 교역을 선호

* 스페인 무역 EU 역내 비중(2019년 상반기) : 수출(72.7%), 수입(42.7%)

- 스페인의 10대 수입 대상국을 보면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국가
 - 중국은 가격, 미국은 품질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내세워 스페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들은 EU 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인 상황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꾸준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약 3,128백만 유로 기록

2018년 스페인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수입금액	비중(%)
1	독일	40,072	12.6
2	프랑스	34,476	10.8
3	중국	26,908	8.4
4	이탈리아	21,088	6.6
5	미국	13,152	4.1
6	네덜란드	12,973	4.0
7	포르투갈	11,561	3.6
8	영국	11,449	3.5
9	벨기에	7,442	2.3
10	터키	7,117	2.2
20	일본	4,132	1.3
23	한국	3,128	1.0
총수입		318,864	100

자료 : Datacomex

 **유럽은 생산재, 중국은 소비재, 한국은 자동차가 주력**

- 스페인의 유럽 역내 주요 교역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부터는 생산재, 중간재, 자동차를 주로 수입
- 중국으로부터는 유럽 국가 대비 내구성 및 비내구성 소비재에서 강세
 - 소비재 외에 생산재와 중간재 수입도 많은 편이라 기계류나, 부품류 에서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선전 중인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자동차가 1위이고, 그 뒤를 중간재와 생산재가 뒤따르고 있음

2018년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한국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생산재	12,137	중간재	8,954	중간재	3,090	생산재	9,656	자동차	1,183
2	자동차	11,076	자동차	8,448	생산재	2,636	비내구성 소비재	9,416	중간재	1,090
3	중간재	10,848	생산재	6,901	자동차	2,236	중간재	3,902	생산재	507
4	식품·음료·담배	2,910	식품·음료·담배	4,709	식품·음료·담배	1,133	내구성 소비재	2,200	비내구성 소비재	163
5	비내구성 소비재	1,794	비내구성 소비재	1,895	에너지	777	식품·음료·담배	884	에너지	79
6	내구성 소비재	762	에너지	1,459	비내구성 소비재	770	자동차	588	내구성 소비재	42
7	원자재	337	원자재	1,242	원자재	402	원자재	187	식품·음료·담배	35
8	에너지	142	내구성 소비재	439	기타	303	기타	35	원자재	23
9	기타	62	기타	424	내구성 소비재	100	에너지	35	기타	1

자료 : Datacomex

 **진입장벽 및 애로 사항**

- 소량 구매 선호
 - 스페인 기업들은 물류비용과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량 구매를 선호
 - 유럽 기업과 경쟁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하나, 소량 수요로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없어 애로 발생
 - 또한 부품과 같은 중간재의 경우 소량 수요에 맞춰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스펙을 변경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상황

○ 제품 납기 문제

- 스페인 바이어들과 접촉 시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편이나, 오랜 배송 기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음
- 한국산 제품의 운송기일을 고려할 때 유럽, 미주, 중동 등보다 빠른 납기를 보장해 주는 경쟁국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
- 대부분의 대형 유통망은, 1~2주 분의 물량만 직접 핸들링하면서 재고 관리는 현지 공급사에 일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중간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

○ 인증제도

- 스페인 수출을 위해서는 통상 CE, 또는 품목에 따라 별도의 위생인증이나, 국제 인증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 스펙별로 개별 제품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확정되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도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
- 우리기업은 주문 확정시 인증을 취득하겠다고, 바이어를 설득하는 반면, 바이어는 인증 미보유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주문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A/S 처리 지연

- 스페인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높은 품질, 품질대비 가격에 높은 만족
- 그러나, 기기·기계의 경우 제품 판매 후 A/S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처리가 고객만족을 위해 필수
- 스페인-한국 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부품수급, A/S 대응 등이 신속하지 않아 바이어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우리기업 수출 성공 사례·실패 사례

○ 성공 사례

- 2019년 전까지 스페인 수출이 전무 했던 안경렌즈 제조사 S사는 2018년 가을 스페인 유통사로 부터 오퍼를 접수
- 바이어는 소량 구매를 희망하였으나 S사는 대물량 수출이 원칙이라 애로 발생
- 고민 끝에 S사는 스페인 바이어의 성향을 고려하여 물량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결정, 첫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후속 오더를 논의 중

○ 실패 사례

- 특장차 제조기업인 T사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스페인 바이어로부터 오더 접수

- 바이어는 샘플 오더로 현지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3대를 주문
- 그러나 T사에서는 최소 주문량(MOQ) 60대를 고수하여 결국 거래가 무산됨
- 시사점
 - 스페인 바이어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첫 구매는 소량 오더를 선호하는데 첫 오더에서 부터 MOQ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성약이 어려움
 - 따라서 첫 번째 거래 시에는 MOQ를 비롯한 여러 거래 조건을 유연성 있게 제시하여 바이어가 큰 리스크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다. 투자유치 및 진출

최근 투자유치 및 진출 동향

-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성장세 지속, 신용등급상향 등의 호재로 투자유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2018년 유치액은 486.5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
 - S&P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조정, 투자가 신뢰도 상승
 - 투자 분야를 보면, 물류가 1위(29.6%), 에너지가 2위(8.1%)인데 포스트 브렉시트를 대비한 물류기지 이전, 西 정부의 적극적 신재생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 산업별 비중(2018년) : 물류(29.6%), 에너지 공급(8.1%), 건설(8.1%), 부동산(6.7%), 통신(5.1%)
 - 투자지역을 보면, 마드리드가 압도적 1위(85%)인데 정치, 경제 중심지라는 이점 이외 카탈루냐 독립 리스크로 바르셀로나에 대한 선호도가 축소된 것으로 보임
 - * 지역별 비중(2018년) : 마드리드(85%), 카탈루냐(6%), 발렌시아, 바스크(1.9%), 안달루시아(1.0%)
 - 국별로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유럽 국가로 투자유치도 역내 관계가 두드러짐
 - * 국별 비중(2018년) : 독일(30.6%), 룩셈부르크(28.9%), 네덜란드(12.6%), 이탈리아(4.8%), 영국(3.4%)
- (해외투자) 스페인 경제성장으로 국내투자 선호 추세가 나타나 2018년 스페인 기업의 해외 투자액은 약 2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39.4% 감소
 - 투자 분야별로 보면, 금융서비스가 28%로 1위로 Santander, BBVA 등 대형 금융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 산업별 비중(2018년) : 금융서비스(28%), 농축산업(13%), 도매(10.8%), 건설(6.7%), 부동산(6%)
 - 투자대상국을 보면, 최근 경제성장이 더딘 유럽 지역보다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북중남미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국별 비중(2018년) : 멕시코(22%), 미국(14.2%), 네덜란드(13.2%), 영국(7.6%), 브라질(7.5%)

스페인 FDI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1993~2019년 6월
inbound	25,342	33,956	24,245	48,645	4,518	444,196
outbound	33,618	36,246	40,407	24,497	988	769,349

자료 : DatainveX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 2018년 기준 약 30개의 한국 기업이 스페인에 진출
 - 한국의 대(對)스페인 투자 76% 이상이 2009년 이후 이루어졌으며, 투자 분야 다변화와 투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주재국 정부의 한국기업 유치 관심도 상승
 - 전자 및 가전 제품,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항공운수, 물류 서비스 등에 투자

경쟁국 진출 동향

- 중국 : M&A 및 지분투자, 민간의 부동산 투자 등 기업과 민간 투자 동시 확대
 - 경제위기 이후 저가로 나온 유망기업 M&A 혹은 지분투자, 관광업 활황을 노린 부동산, 호텔업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투자 확대 중
 - 2013년 고가 부동산(50만 유로 이상 주택) 매입 외국인에 대한 스페인 거주증 발급 허용 법안이 통과되어 개인 투자자들의 진출도 확대 추세
 - 중국의 대(對)스페인 투자는 2015년 14.8억 유로로 최고점 기록 후 2016~2017년 대폭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약 7,752만 유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 중국의 대서(對西) 투자 : 11.2억 유로(-24.5%, 2016년), 3,581만 유로(-74.4%, 2017년), 7,752만 유로(+116.5%, 2018년)
- 일본 : 대(對)스페인 투자 방향을 제조업 생산기지에서 현지 기업 M&A로 다변화
 - 과거 스페인은 저렴한 인건비 대비 높은 기술력을 장점으로 일본 글로벌 기업의 유럽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했으나, 동유럽 국가가 생산거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 기업의 스페인 내 제조 공장 철수 가속화
 - 현재 일본은 기존의 대규모 자본을 동반한 제조업 진출에서 현지기업 인수 또는 합작을 통한 진출로 투자 다변화 시도 중
 - 일본의 대서(對西) 투자는 2015년 이후 하락 추세이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66.3% 증가
 - * 일본의 대서(對西) 투자 : 5.1억 유로(-8.3%, 2016년), 1,959만 유로(-96.1%, 2017년), 7,769만 유로(+66.3%, 2018년)

투자진출 진입장벽

- 인력확보 애로
 - 스페인에서 한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획득 지원이 선결과제인데 스페인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취업비자 획득이 매우 까다로움
- 노무관리 애로
 - 스페인은 노조가 강한 편으로 특히 제조업, 운수업 등의 분야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법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확보하고 있어 단순히 노동법만 숙지한 후 현지 투자를 감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 가능
 - 집중근무 제도라는 명목으로 매주 금요일 및 하절기(6월 말~9월초)에는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오전 8시~오후 2~3시까지 근무 후 퇴근
- 금융시스템
 - 스페인의 은행 수수료는 한국보다 높은 편인 데다가 주거래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 사례

- D사는 대형 상사에서 근무하던 L사장이 2004년 스페인에 설립한 기업으로 무역, 그린 산업, 보안 산업, 컨설팅 등으로 사업 분야가 나누어짐
- 사업 초기 스페인 현지출장을 통해 유망품목 10개를 선정하였으며 전시회 참가, 협회 방문 등 다방면으로 바이어 발굴 결과, 스페인 최대 백화점인 엘 꼬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에 PMP를 공급하는 데 성공
- 엘 꼬르테 잉글레스 진입 성공에 이어 스페인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Santander)에 지폐계수기 공급 성공(스페인 에이전트 협력)
 - 대형 은행에 직접 공급은 힘들다고 판단, 주요 은행에 납품 중이던 벤더와 협력
- 연이은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후 중장기적인 전략품목이 무엇일지 다시 고민한 끝에 '지문 인식기'로 결정, 이후 동제품에 대한 마케팅 역량 집중
 - 전략품목 선정 기준은 첫째, 스페인에 수요가 있으나 아직 충족되지 못한 분야, 둘째, 한국이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였음
 - 이 두 가지 기준에 잘 부합하는 것이 바로 지문 인식기였는데 한국은 지문 인식기가 발달해 있었으나, 스페인은 초기 단계였음
- 전략품목 마케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UN 건물, 법무부, 5성급 호텔, 스페인의 대표적 은행 중 하나인 BBVA은행 등에 납품 성공
- D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시장 조사, 시장 세분화를 통한 유망품목 발굴이 중요하다는 것임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수출입 현황

- 2019년 들어 수출은 하강, 수입은 증가
 -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효력이 적용됨
 - 스페인은 한국의 30위 수출 대상국, 30위 수입 대상국(2019년 1~7월 기준)
 - 무역수지는 최근 3년간 한국 측의 흑자였으나 2019년 들어 흑자 폭 감소
 - 최근 5년간 대(對)스페인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9년(1~7월) 들어 7.3% 감소
 - 한국의 대(對)스페인 수입은 한때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018년 기점으로 반등

한국 대(對)스페인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교역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7월
수출	금액	2,171	2,329	2,791	3,027	1,706
	증감률	5.0	7.3	19.8	8.5	-7.3
수입	금액	2,355	2,005	1,953	2,504	1,696
	증감률	-19.1	-14.2	-2.6	28.2	28.7
총 교역규모	금액	4,526	4,334	4,744	5,531	3,402
	증감률	-8.7	-4.2	9.5	16.6	7.7
무역수지	금액	-164	324	838	523	1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 자동차,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판매 중심
 - 자동차의 경우 스페인에는 8개 회사가 공장을 가지고 있어 공장이 없는 한국기업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기아와 현대가 각각 시장점유율 8,9위 차지
 - 자동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3개 품목이 상위 5위권에 있으며 그 외에는 철강, 화학, 발전기 등 중간재 수출이 두드러짐

한국 대(對)스페인 품목별 수출

(단위 : 천 달러)

순위	MTI 코드	품목	2018년		2019년 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총계	
			3,027,371	8.5	1,706,172	-7.3
1	7411	승용차	812,580	13.8	480,528	-5.8
2	2140	합성수지	275,334	18.0	161,773	-3.4

3	7420	자동차 부품	232,038	-30.9	123,536	-18.2
4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161,213	10.1	89,421	10.5
5	3203	타이어	87,150	48.4	38,273	-27.1
6	6133	냉연강판	90,903	58.3	36,766	-38.4
7	2289	정밀화학원료	55,921	44.8	33,221	-6.8
8	6131	중후판	50,618	5.7	33,047	14
9	8411	발전기	15,515	1,425.9	32,955	436,621.7
10	6134	아연도강판	61,698	69.8	32,137	-1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입) 항공기, 가축육류 수입이 대폭 증가
 - 2018년 하반기에 한국 공군이 스페인에 위치한 에어버스로부터 공중 급유기를 구입한 관계로 항공기 수입액이 대폭 증가
 - 한국에서 스페인 돼지고기(이베리코)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 가축 수입도 증가

한국 대(對)스페인 품목별 수입

(단위 : 천 달러)

순위	MTI 코드	품목	2018년		2019년 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504,152	28.2	1,695,991
1	7471	항공기	211,561	29,069.1	418,606	45,059,800.0
2	0221	가축육류	259,427	31.6	178,785	22.8
3	1190	금속광물	151,880	47.8	135,790	111.1
4	2262	의약품	170,635	17.1	97,153	3.9
5	5113	가방	62,863	10.3	46,682	29.7
6	7420	자동차 부품	55,197	27.8	43,359	94.5
7	0131	식물성유지	81,352	4.4	43,077	2.8
8	7411	승용차	46,552	-77.8	40,741	17.9
9	1334	나프타	211,859	186.8	40,295	-74.7
10	2140	합성수지	103,800	-14.4	37,840	-34.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 2018년 기준, 스페인 내 27개의 한국 기업들이 지사 및 법인 운영 중
 - ※ 마드리드 무역관이 파악하지 못한 기업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
 - 한국의 대(對)스페인 투자 76% 이상이 2009년 이후 이루어졌으며, 투자 분야 다변화와 투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주재국 정부의 한국기업 유치 관심도 상승
 - 전자 및 가전 제품,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항공운수, 물류 서비스 등에 투자

스페인 진출 한국기업

구분	무역 상사	엔지니어링	가전 전자	자동차 부품· 타이어	자동 차	항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정유	기타 서비스	총합
기업수	3	1	2	5	2	2	2	2	8	27

자료 : 마드리드 무역관

- 우리기업의 대(對)스페인 투자에 대한 관심 확대 추세
 - 2018년 기준 한국 기업의 대(對)스페인 투자액은 99백만 달러, 신고 건수는 36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 기록
 -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투자 급증가의 주요 원인

한국의 대(對)스페인 투자 추이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총누적
신고건수	6	6	19	36	10	264
신고금액	15,218	12,066	11,353	147,299	34,550	1,363,418
투자금액	15,220	11,401	10,454	99,105	31,323	1,122,69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최근 5년간 한국의 대(對)스페인 투자 분야 다변화 및 투자규모 확대
 - 과거 한국의 대(對)스페인 투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 삼사, 현대, 기아, 쌍용 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현지 판매법인 설립이 주를 이룸
 - 최근에는 제조업(미원홀딩스, 동국실업), 건설업(GS 건설), 운수업(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신재생에너지(한화에너지) 등으로 투자 분야 다변화 추세

한국의 산업별 대(對)스페인 투자

(단위 : 천 달러)

1980~2019년 6월 총누적		2015~2019년 6월(최근 5년)	
산업명	투자금액	산업명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70	광업	2,238
광업	57,967	제조업	11,732
제조업	264,747	건설업	96,095
건설업	390,724	도매 및 소매업	1,745
도매 및 소매업	196,086	운수 및 창고업	8,608
운수 및 창고업	109,244	숙박 및 음식점업	907
숙박 및 음식점업	4,041	정보통신업	465
정보통신업	14,045	부동산업	45,364
금융 및 보험업	39,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부동산업	45,36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60	N/A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7		
N/A	26		
총합	1,122,693	총합	167,50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스마트시티

- 스페인 정부, 2018~2020년 스마트국토 계획 추진 중으로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스마트관광 등 국토개발 전 분야에서 스마트화 추진 중
 - 스마트시티 : IT 산업 GDP 증대와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진흥계획’ 수립. 3개년 단위로 스마트화 프로젝트 지원 중
 - 스마트팜 : 농촌의 정보격차 축소와 데이터 사용 활성화, 기업 활동 장려, 신사업 모델 개발 등을 목표, EU의 PAC(Politica Agricola Comun, EU 공동 농업 정책) 예산을 활용하여 농업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춘 기계 및 서비스 도입 지원
- 스마트국토 개발 정책 교류, 유망품목 교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교류
 - 한국은 IT 기술과 인프라가 발달된 편이고, 스페인은 친환경 정책과 정보공개가 발달된 만큼 양국이 서로 강점을 가진 부분에서 교류한다면, 시너지 예상
 - 스마트팜은 스페인 현지 수요가 많은 스마트 온실이나, 관개 시설이 유망
 - 관광 대국, 스페인의 스마트관광 사례 참고 및 한국 기술을 스페인에 도입
 - * 세고비아의 증강현실 스마트 글라스, 딸라베라의 자율주행 미니서브 운행 등

신재생에너지

- 스페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 적극 추진 중
 - 스페인 정부는 ‘2021~2030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 가스 21%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42%(최종 소비기준)가 목표
-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 중
 -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스페인 2위의 전력 생산 기업으로 2019년 스페인 까스티야데라만차 지역에 15천만 유로를 투자, 태양광 발전소 4개를 건설 중
 - 악시오나(Acciona)도 대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2020년까지 약 20억 유로를 투자, 스페인에 2,000MW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스페인 신재생 기업의 대한 투자 유도
 -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원, 정부정책, 우수한 시공능력 등이 합쳐져 90년대 중반부터 신재생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해왔으며 대형 신재생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관심이 높은 편
- 프로젝트 인수, 합병으로 스페인 시장 진출
 - 현재 스페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이 한창으로 한국기업의 경우 발전소 건립 후 운영 혹은 건립 후 현지 업체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 유망



Ⅲ. 진출전략

- ▶ 디지털 선도국으로서의 한발 앞선 경험을 Reference로 西 디지털 시장 진출
- ▶ “Made by Korea” 프리미엄 전략으로 소비재 진출 확대
- ▶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동반진출로 유럽 편향 구도 돌파
- ▶ 스페인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Born European 스타트업 지원
- ▶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현지 거점 구축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스페인 시장 SWOT 분석>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width: 30px; margin: 0 auto;">S</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margin-top: 5px;"> <p>강점 (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경제 선도국 • 소비재, 치열한 내수시장 및 인근 아시아 시장에서 단련된 높은 경쟁력 보유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709238;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width: 30px; margin: 0 auto;">W</div> <div style="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margin-top: 5px;"> <p>약점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브랜드, 유럽 기업 대비 인지도 약세 • 스타트업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수준은 아직 부족한 상황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width: 30px; margin: 0 auto;">O</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margin-top: 5px;"> <p>기회 (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업계, 차세대 모빌리티 적극 준비 중 •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유럽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허브로 부상 중 • 西 정부, Connected Industry, 스마트시티, 5G 등 국가 디지털화 적극 추진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709238;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width: 30px; margin: 0 auto;">T</div> <div style="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margin-top: 5px;"> <p>위협 (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교역액의 약 55%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역내교역 비중 • 2019년부터 경제성장 하락세 예상 </div>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선도국으로서의 한발 앞선 경험을 Reference로 신뢰도 고양 • ‘Made by Korea’ 프리미엄 전략으로 식품, 화장품을 필두로 한 소비재 진출 확대 	디지털 선도국· 한국산 프리미엄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진출로 유럽편향 구도 돌파 	동반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CVC 프로그램, 스타트업 전문 이벤트를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통로로 활용 • 스페인 기업과 협력, 모빌리티 시장 진출 	오픈 이노베이션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소비 축소에 대응, 가성비 제품으로 승부 • 스페인 시장뿐 아니라 유럽 시장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현지 거점 마련 	가성비· 유럽 시장 플랫폼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선도국 장점을 살려 스페인 5G 시장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페인은 인구 4,600만 명, GDP 1.4조 불을 보유한 유럽 5위의 대형시장
 - * 5G 사용 인구와 IT 산업규모도 유럽 상위권 수준
 - * 2017년 기준 스페인 IT 산업 매출액은 약 876억 유로로 EU 전체 매출의 약 11% 차지
- 유럽 5G 네트워크 인프라 준비율 선두국
 - * 2019년 기준 스페인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준비율은 유럽 평균 14%의 2배 이상인 30%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페인 정부의 5G 활성화 정책 발표, 2020년 중 700MHz 주파수 경매 예정
 - 2017년 5G 기술 개발 유럽 선두 국을 목표로 5G 활성화 정책을 발표, 5G 주파수 대역 관리, 파일럿 서비스와 5G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중
 - 2018년 7월, 3.6GHz~3.8GHz 대역의 주파수를 3대 통신사(텔레포니카, 보다폰, 오렌지)에게 경매 완료, 2020년 6월 이후 700MHz 대역 주파수를 경매할 예정
 - * 3.6GHz~3.8GHz 주파수 할당 내역 : 오렌지(60MHz), 텔레포니카(50MHz), 보다폰(90MHz)
- 3대 통신사, 5G 파일럿 서비스 제공 중
 - 텔레포니카(Telefonica) : 마드리드로부터 100~150km 가량 떨어진 중간규모 도시인 세고비아(인구 5만)와 딸라베라(인구 10만)에서 5G 시범 운영 중
 - * 세고비아 : 노키와와 협력하여 5G 증강현실을 이용한 관광 파일럿 서비스 제공 중
 - * 딸라베라 : 에릭스와 협력하여 자율 주행 미니서브 운행 중
 - 보다폰(Vodafone) : 2019년 6월 화웨이와 협력하여 스페인 최초로 스페인 16개 도시에 3.7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한 5G 이동 통신 서비스 개시
 - * 16개 도시 :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아, 빌바오, 말라가, 사라고사, 빅토리아, 산세바스티안, 꼬루냐, 비고, 히혼, 뽀뽀로냐, 로그로냐, 산탄데르
 - 오렌지(Orange) : 바르셀로나, 세비아, 발렌시아 등 스페인 7개 도시에 5G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카, 산업용 로봇 등의 파일럿 서비스 제공 중
- 금융 및 제조업체에서도 5G 도입 움직임 활발
 - 산탄데르(Santander, 금융) :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Smart Red 5G 오피스'를 마드리드에 개설 및 시범운영
 - 세앗(Seat, 자동차) : 5G의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 차량과 인프라 간의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 및 공유하는 시범 서비스를 바르셀로나에서 시범 지원 중
 - 세페트라(Cefetra, 스마트팜) : 5G를 이용한 토지 측량 기술 서비스 제공 중
 - 옵트랄(Optral, IT 관련 유통사) :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스페인 주요 통신사들의 공식 벤더로 5G 인프라 구축에 있어 프로젝트 진행 예정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의 한발 앞선 경험을 ‘Refernce’로 신뢰도 고양
 - 한국은 2019년 4월 5G 상용화를 개시, 세계 최초의 5G 상용 서비스 국가로 등극
 - 따라서 한국이 먼저 기술을 적용시켜 보았다는 First Mover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홍보하여 스페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음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진출로 유럽 편향 구도 돌파
 - 스페인은 파트너 선정 시 유럽 역내 유력 IT기업인 노키아, 에릭슨, 도이치 텔레콤 등을 선호하며,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화웨이 같은 중국기업도 선호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인지도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통신기업(KT, SK, LG 등)이나 글로벌 하드웨어 기업(삼성, LG)과 동반진출이 효과적
- 진출유망 분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동통신증폭기, 스마트팩토리 등이 있음
 - 스페인은 유럽 2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이 활발
 - 스페인은 인구 고령지역이 많아 전 국토에 고르게 5G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와이파이 증폭기 수요도 높음
 - 스페인 정부와 민간업계 모두 제조업 현장에 IT기술 도입에 관심이 높음

2-2. 모빌리티 혁명을 맞아 한-스페인 新 밸류 체인 구축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8개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17개의 생산기지 운영
 - * 2018년 기준, 독일 1위(512만 대), 스페인 2위(282만 대), 프랑스 3위(227만 대)
- 스페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기 환경 개선 정책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중
 - * 2018년 기준 친환경 자동차 판매는 전년도 대비 약 72% 증가
- 타유럽 국가 비교 자동차 공유 서비스 문화 발달
 - * 스페인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 경험비율은 유럽 평균 14%를 넘는 19%로 조사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판매는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8년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총 87,586대로 전년 대비 약 39% 증가
 - * 최근 3년간 전기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 : 2016년(34,551대), 2017년(63,000대), 2018년(87,586대),
- 차세대 자동차 생산을 위해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활발히 기술개발 중
 - BMW : 운전자와 주변 환경 간에 상호 작용하고, 운전자의 음성 및 움직임을 차량운행에 반영한 전기 자율주행차 개발 중 2021년 시판 예정

- SEAT : 교통신호 반응, 장애물 관리, 기타 차량과의 정보교환 등 5G를 활용한 신기능을 도입한 미래형 콘셉트카를 바르셀로나에서 시범 운행 중
- PSA : 차량과 차량, 보행자, 인프라 간의 교통 상황에 대해 자동차가 모니터링 하여 운행에 필요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 중
- 자동차 클러스터,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
 - 스페인 자동차 클러스터는 총 9개로 약 690개 기업과 2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
 - 클러스터 사무국에서는 클러스터 내의 연구기관과 협력, 입주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저금리 자금 대출 지원
 - 연구기관과 지역대학교가 협력하여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전기 스쿠터와 전기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 가파른 증가 추세
 -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요 대폭 증가 추세
 - * 최근 3년간 퍼스널 모빌리티 증가율 : 2016년(128.5%), 2017년(211.2%), 2018년(71.8%)
 - 대표적인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는 eCooltra, Muving, Movo 등이 있음
- 스페인 유력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와의 인터뷰
 - 스페인과 중남미 영업권을 보유한 스페인 유력 자동차 부품회사, M사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스페인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지원, 등록세 및 주행세 면제, 환경오염차들 중심으로 도시 진입 규제 등 다양한 혜택 및 규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2018년에 전기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약 50% 이상이 증가했다고 설명
 - 또한, 전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확대될 전망으로 전기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M사는 현재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스페인 유통판매 및 중남미로 수출 중에 있으며,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여 현재 수입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전기차 관련, 향후 배터리 등의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해당 제품 수입에 큰 관심을 보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글로벌 파트너링으로 맞춤형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 스페인에는 8개의 자동차 메이커가 있어 이들 기업이 개발 중인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
 - 다만 현지 거점이 없는 중소기업은 직접 공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스페인의 Tier1 기업들과 협력하여 진출하는 방안이 유망

- 스페인 자동차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진출 고려
 -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관련 인재 및 부품기업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자동차 클러스터가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음
 - 특히 스페인 북부의 CEAGA 클러스터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우수 클러스터로 인증받은 곳으로 스페인뿐 아니라 남서유럽 진출에 유리한 위치
 - 유럽 차세대 자동차 개발의 심장부인 클러스터에 입주한다면, 신기술 개발, 대기업 GP 기회 창출, 유럽 지역 수출이라는 1석 3조 효과 가능
- 경쟁국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진출
 - 스페인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일본과 대만산 제품이 선전하는 중이므로 이들 제품과 차별화된 모델로 접근 필요
 - 예를 들어 공유 서비스 모델은 내구성이 중요하므로 내구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거나, IT 기기와의 연결성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

2-3. K-Culture 확산을 지렛대로 소비재 수출 2단계 진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최근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영화, 음악, TV)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소비 제품에 문화적인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현재 대형 유통업체 및 전문점에서 한국 화장품, 식품 등 판매 중
- E-Commerce 시장 약 25%대 고공 성장 지속
 - * 최근 3년간 E-Commerce 시장 증가율 : 2016년(25.4%), 2017년(28.1%), 2018년(26.9%)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스페인 최고 백화점인 엘 꼬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와 화장품 전문매장인 뿌리몰(Primor)은 한국 화장품 코너를 운영 중이며 한국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들도 증가
 - 한편 스페인 국민 중 상당수가 아시아 식품을 친근하게 소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식재료에 대한 소비도 확대추세. 현지 주요 슈퍼마켓과 백화점에서는 한국라면, 장, 음료수, 김 등을 판매 중에 있음
- 스페인 주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재 품목의 PB 비중 확대 추세
 - 합리적 성향의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PB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높은 편
 - Lidl의 PB 비중은 83%에 육박하며 西 1위 슈퍼마켓 Mercadona도 절반 상회

* 주요 유통업체 PB 비중 : 1위 Lidl(82.9%), 2위 Mercadona(58.2%), 3위 Dia(48.4%), 4위 Consum (26.8%), 5위 Eroski(25.8%), 6위 Carrefour(21.9%), 7위 Grupo Auchan(18.2%)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인터넷 구매율도 가파르게 성장 중

- 2018년 온라인 시장 규모는 약 10,820백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증가

* 최근 3년간 온라인 시장 규모 : 2016년(6,656백만 유로), 2017년(8,526백만 유로), 2018년(10,820백만 유로)

- 특이한 것은 휴대전화보다 PC를 이용한 구매를 선호하며페이팔 결제 선호

* 온라인 구매 시 선호하는 기기 : 1위 P(87%), 2위 휴대폰(45%), 3위 테블릿(17%), 스마트TV(6%)

* 온라인 구매 선호 결제 방식 : 1위 페이팔(71%), 2위 직불카드(51%), 3위 계좌이체(24%), 4위 신용카드(20%)

- 스페인 소비자들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비중도 높은 편으로 해외 온라인 구매는 유럽 역내 지역에 95.3%가 집중되어 있음

○ 스페인 바이어, 한국에서 화장품, 면류, 소스류, 음료 등 물색

- 스페인 최대 슈퍼마켓인 M사의 구매 담당자인 S씨에 의하면, 최근 다양한 아시아 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한국 식품은 중국 또는 일본 식품에 비해 인지도는 낮은 것을 약점으로 지적 그러나 한국 식품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편이라 향후 한국 식품 공급 업체를 적극 물색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스페인 최대 아시아 식품 수입유통사인 I사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들은 주로 한국 라면 등의 면류, 건강 음료, 각종 소스류를 수입 중으로 현재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향후 수입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 한국 화장품을 수입 중인 M사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한국 화장품은 가격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참신한 포장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함 현재 마스크 팩, 스킨케어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 중이며, 향후 다양한 컬러의 색조 화장품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Made in Korea’를 넘어 ‘Made by Korea’로 브랜드 가치 상승

-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국 제품임을 강조, 신흥국산과 차별화

- 신흥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이 만든 제품(Made by Korea)’임을 강조하여 프리미엄 이미지 유지

○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비, PB 제품 진출 시도

- 경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PB 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 예상

- 따라서 가성비가 높은 PB로 유통망 진출이 필요한 시기인데 화장품, 식품 등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 위주로 진출 시도 필요

○ 온라인 쇼핑, 홈쇼핑, 아시아 전문점 등 유통 채널 다변화

- 젊은 층의 온라인 쇼핑 수요를 고려하여 온라인 입점을 적극 추진하되 PC 비중이 높으므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PC 디스플레이에 최적화 필요
- 스페인 노년층의 경우 아직 홈쇼핑을 통한 구매가 많고, 한국 식품은 아시아 전문 슈퍼마켓에서 많이 소비되므로 이들 채널을 통한 진출도 유망

2-4. 브렉시트에 대응, 스페인을 유럽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영국 보수당 보리스 존스 총리 당선 이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 스페인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 87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
 - * 양국 통상관계는 물론 스페인 남부 지르랄타 영토 문제까지 폭넓게 대비 중
- 스페인 기업은 2019년 하반기 이후 경영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꼽은 바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페인 입장에서 영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Top 5 국가 중 하나이며 투자도 활발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와 농산물, 의류 등 소비재 비중이 크고, 수입품은 화학, 원자재, 환경, 철강 등 원자재, 중간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스페인의 영국에 대한 투자는 금융, 부동산, 교통운수업이 많으며 영국의 스페인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 교통운수업, IT 등이 주류를 차지
- 스페인 주요 기업들은 영국 투자축소, 법인이전 등 다양한 대책 수립 중
 - 스페인 최대 은행은 산탄데르(Santander)는 브렉시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고 있으며, 영국 지점의 20% 축소 계획
 - 대형 건설기업인 페로비알(Ferrovial)은 영국 자회사를 네덜란드로 이전 예정
 - 에너지 기업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영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분을 호주에 인수
- 한편 스페인 정부는 '2018~2022 대(對)아시아 전략적 비전'에서 아시아를 '기회의 대륙'으로 칭하고, 특히 한국을 주요 전략적 진출 국가로 지목하였는데 브렉시트는 한국과 스페인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부터의 수입 대체 수요에 적극 대응
 - 한국은 스페인을 포함한 EU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영국보다 관세나 수출입 절차의 간소함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스페인이 영국으로부터 다량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이기도 한 만큼 대체수요에 대응 가능
-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유럽 진출 거점 이동
 - 현재 영국에 지사나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영국뿐 아니라 유럽을 겨냥하여 현지거점을 운영 중이므로 브렉시트 이후에는 법인 이전 고려 필요
 - 스페인은 인건비를 비롯한 회사 운영비용이 다른 유럽 국가 대비 저렴한 편이면서도 우수한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럽진출 거점으로 적합
- 스페인 기업의 영국 대체 투자지로 한국을 적극 홍보
 - 스페인은 신재생이나 철도 산업 등 한국에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적극 유도

2-5. 한-스페인 양국의 강점을 결합 제3국 공동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남미와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어 중남미와의 경제 교류가 활발
 - * 스페인-중남미 기업들 간 훌륭한 네트워크 보유, 한국 기업들은 스페인 기업을 활용한 중남미 동반 진출 가능
- 스페인은 건설업 강국으로 세계 250대 건설사 중 스페인계 기업이 11개사나 포함되어 있음
 - * 스페인 건설사 순위(2017년) : ACS(1위), Ferrovial(11위), Tecnicas Reunidas(19위), Acciona(31위), FCC(42위), OHL(45위) 등'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페인,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중남미로 수출하는 중개(중계) 무역 사례 다수
 - K사(자동차 부품) : 한국 노후차가 많은 쿠바를 주요 타깃으로 중계무역(OEM)
 - S사(자동차 부품) : 물건을 바로 중남미로 수출하는 중개무역과 스페인으로 수출 후 포장을 교체하는(OEM) 중계무역을 통해 쿠바, 도미니카 등 수출
 - A사(자동차 부품, 타이어) : 한국 노후차가 많으며 자금 유동성란 부족한 쿠바, 도미니카 바이어 대상으로 중계무역
- 중남미 바이어의 수요에 직접 대응이 힘든 '직수출 사각지대' 존재
 - 중남미로부터 오퍼를 받고도 거래 리스크로 인해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
- 양국 모두 건설업이 발달해 있어 제3국 협력 진출에 유리
 - ENR 선정 전 세계 상위 250대 건설기업(해외건설매출기준) 중 스페인 기업 수는 총 11개사로 2017년 총 590억 달러의 매출 기록

- 같은 해 상위 랭크된 한국 건설기업도 총 11개사로 257억 달러의 매출 기록
- 중남미 건설 프로젝트의 약 30%가 스페인 기업이 수주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기준 스페인 건설 기업들이 중남미에 보유한 프로젝트 규모는 약 12,295백만 달러에 해당
 - ACS : 2019년, 칠레의 광산용 담수화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와 아르헨티나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수주
 - 악시오나(Acciona) : 2017년 1월 멕시코의 신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 같은 해 3월 파나마의 Pnamerica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2018년 1월 칠레의 Marga Marga 병원건설 프로젝트 수주
 - OHL : 2019년 6월 멕시코의 Atizapan-Atzacomulco 도로건설, 2016년 9월, 칠레의 Curio와 Valparaiso 병원 건설, 2019년 3월 콜롬비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수주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중남미 기업과의 거래방식에 익숙한 스페인 기업을 통해 리스크 헷지
 - 중남미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어 중 일부는 신용도가 낮거나 다소 무리한 외상거래 조건을 제시하여 한국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
 - 한국이 스페인으로 수출하고, 스페인이 중남미로 수출하는 중개(중계) 무역 추진
- 한국과 스페인 양국의 강점과 주력시장을 상호보완하는 Win-Win 전략 구사
 - 양국 모두 건설업이 발달해 있는 가운데 ‘경쟁력’과 ‘주요 진출국’, ‘강점 분야’ 등은 상이하여 양국기업이 상호 협력 시 Win-Win 관계 성립

한국-스페인 건설 산업 경쟁력 비교

분류	비교우위	주요 진출국	강점 분야
한국	가격, 기술	중동, 아시아	플랜트, 인프라, 제조공장
스페인	시공, 품질	북미, 중남미, 유럽	수처리, 신재생, 엔지니어링

한국-스페인 제3국 프로젝트 공동 진출 사례

시기	한국회사	스페인회사	프로젝트 개요	금액
2012년	현대건설	Acciona Aguan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 공사	약 3억 5천만 불
2016년	현대건설	Sacyr	파나마 운하 교량 공사	약 10억 불
2018년	대우건설	Tecnicas Reunidas	오만 두쿰 정유 플랜트 공사	약 28억 불

3 한-스페인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G2G, G2B, B2B 다각도 협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페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2030년까지 236,124백만 유로 투자 계획
- 스페인은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
 - * 2018년 기준 : 핵발전(21.4%), 풍력(19.8%), 석탄(14.5%), 수력(13.7%), 가스(10.8%), 태양에너지(4.8%), 기타(15%)
- Iberdrola, Acciona, Gamesa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보유*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페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 적극 추진 중
 - 스페인 정부는 2021~2030년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 가스 21% 감축 및 최종 사용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 42%가 목표
 - * 2030년 에너지 종류별 발전량 목표 비중 : 풍력(32%), 태양광(28.2%), 수력(9.3%), 바이오 가스(0.2%), 석탄(0~0.8%), 석유(0.15%), 핵 발전(2.0%), 기타(27.35%)
 - 2018년 기준 총 전력 소비의 약 17%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 * 풍력(19.8%), 수력(13.7%), 태양광(4.8%), 기타(1.7%)
-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 중
 -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스페인 2위의 전력 생산 기업으로 2019년 스페인 까스티야데라만차 지역에 15천만 유로를 투자, 태양광 발전소 4개를 건설 중이며 사라고사에는 26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El Pradillo 풍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
 - 악시오나(Acciona)도 대형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약 20억 유로를 투자, 스페인에 2,000MV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한편 한국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 중
 - 정부는 '2030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정부 보조금 성격의 REC 가중치를 개정하여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기, ES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어 매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축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에 대응하여 스페인 신재생 기업의 대한 투자 유도
 - 한국 정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의지로 관련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은 유럽기술 수준의 약 80%밖에 되지 않아 선진국과의 협력 필요

-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원, 정부정책, 우수한 시공능력 등이 합쳐져 90년대 중반부터 신재생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대형 신재생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관심이 높은 편

○ 프로젝트 인수, 합병으로 스페인 시장 진출

- 스페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이 한창으로 한국기업의 경우 발전소를 건립, 운영 하거나 건립 후 운영권을 현지기업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 스페인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성이 유망하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극 활용 필요

3-2. 현지창업, 오픈이노베이션 등 스타트업 생태계 공동 조성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유럽 주요 스타트업 창업도시로 부상
 - * 마드리드에는 Google Campus, Wework 등 주요 Coworking Space 소재
 - * 바르셀로나는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은 도시 3위(2017), 생태계 가치는 64억 불로 서울의 약 3배
- 마드리드 South Summit, 바르셀로나 4YFN, 인근국 포르투갈 Web Summit 등 이벤트 연중 개최
- 저렴한 물가, 다양한 ICT 관련 국제 이벤트 개최, 중남미와의 깊은 유대관계 등이 강점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페인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 확대 중

- 2018년, 스페인의 VC 투자 규모는 약 12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44% 증가
 - * 투자한 회사 수는 약 3,415개로 전년 비교 약 4% 증가
- 투자가 이루어진 도시는 바르셀로나가 1위이며, 그 뒤는 마드리드, 발렌시아 순
 - * 지역별 투자 비중 : 바르셀로나(63%), 마드리드(23%), 발렌시아(9%), 기타(5%)
- 투자 분야별 비중을 보면, 1위 통신(35%), 2위 관광(15%), 3위 물류·운송(14%), 4위 핀테크(8%), 5위 건강(5%) 순

○ 스페인 대기업,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적극 추진 중

- 텔레포니카(Telefonica) : 西 최대 통신 회사로 “Telefonica Open Future”를 통해 공유 오피스, 멘토링, 창업 자금 등 서비스 제공, 현재까지 약 1,700개 스타트업 지원
- 이베르드롤라(Iberdrola) : 스페인의 대표적인 전력 기업으로 “Perseo”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시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기회 부여와 지분 투자 등 추진 중
- 랩솔(Repsol) : 스페인 최대 석유기업으로 “Repsol Corporate Venture Capital”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럿 프로젝트, 멘토링, 유명파트너와의 네트워킹, 자금 투자 등을 지원

- 스페인은 국제화수준, 회사운영비용, 타 지역과의 연결성 등 우수한 생태계 보유
 - 한국 대비 높은 국제화 수준(2017 Starup Genome 기준 서울 2.1, 바르셀로나 6.4)
 - 인근 유럽국 비교 물가가 저렴하여 창업비용이나 회사운영 비용이 낮음
 - 언어적 동질성과 역사적 관계 때문에 중남미와 유대관계가 깊어 스페인에서 창업하면, 중남미 진출에도 용이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스페인 현지 창업으로 Born European 스타트업을 지향
 - 스페인 현지에서 창업을 하면,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및 중남미 시장까지 겨냥할 수 있어 비즈니스 국제화에 유리
 - 스페인 투자자들은 현지 거점이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현지에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바이어에게도 큰 장점으로 작용
- Telefonica, Iberdrol, Repsol 등 스페인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기업 기능의 수직적 분해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중요성 증가
 - 각각의 대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Pain Points)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Prin-Killer)를 제안
- 대형 스타트업 이벤트에 참가하여 인지도 및 네트워킹 확대
 -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4YFN(바르셀로나), South Summit(마드리드), Web Summit(리스본) 등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중
 - 대형 이벤트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소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하여 (자사를) 더 널리 알리고, (경쟁사와 시장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외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 시 이를 후광 효과로 적극 활용
 - 투자거나 엑셀러레이터들은 넘쳐나는 스타트업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시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유리
 - 미국, 독일, 영국 등 스타트업 선진국 진출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스페인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3-3. 스마트국토 조성에 대한 Best Practice 벤치마킹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마트시티) 스페인 주요 도시, 세계 스마트시티 상위권 차지
 - * ICIM에 의하면, 세계 16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순위에서 마드리드 25위, 바르셀로나 26위 차지(2018년)
- (스마트관광) 스페인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관광객 순위 세계 3위로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음
- (스마트팜) 스페인은 훌륭한 기상 여건과 넓은 국토로 농업이 발달, 스마트팜 성장 잠재력 높음
 - * 스페인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로 유럽 최고 수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활발히 추진 중
 - 스페인 정부는 IT 분야의 GDP 증대와 공공서비스에 첨단기술을 도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지원 정책 발표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가 있는데 2018~2020년 기간 동안 약 30백만 유로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약 150개 건물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 예정
 - 지자체 프로젝트로는 마드리드의 도시 인프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MiNT Madrid Inteligente”, 까탈루냐의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인 “Smart Catalonia”, 안달루시아의 R&D 장려 프로젝트인 “Andalucia Smart 2020” 등이 대표적
- 스페인 GD 비중이 높은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스마트팜 추진 중
 - 스페인 정부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식품, 삼림, 농촌 지역 디지털화 전략(La Estrategia de digitalizacion del sector agroalimentario y forestal y del medio rural)”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농업 및 농촌지역 디지털화 전략의 목표는 정보격차 축소, 데이터 사용 활성화, 기업 활동 장려 및 新사업 모델 개발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있음
 -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농업 비중이 큰 가스띠야라만차, 안달루시아, 엑스트레마두라 등의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스페인은 관광 산업 발달해 있어 IT 기술의 관광업 도입에 적극적
 - 스페인 정부는 주요 관광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관광 산업 IT 플랫폼 확장을 위해 “스마트 관광지” 정책 수립
 - 해당 정책을 통해 9개의 자치주에서 총 2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7,4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스마트시티 정책 교류 및 프로젝트 상호 참여로 우수 사례 벤치마킹
 - 한국은 IT기술과 인프라가 발달된 편이고, 스페인은 친환경 정책과 정보공개가 발달된 만큼 양국이 서로 강점을 가진 부분에서 교류한다면, 시너지 예상
 - 스페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및 한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운영계획 등 양국 정부가 계획 중인 주요 프로젝트를 교환, 연구
- 스마트팜은 스페인 현지 수요가 많은 스마트 온실이나 관개 시설이 유망
 - 스마트 온실의 경우 비닐하우스 면적이 넓은 안달루시아, 발렌시아, 무르시아 지역 위주로 진출 시도 필요
 - 스페인은 건조한 지역이 많아 관개시설이 유망한데 특히 강수량이 부족한 안달루시아, 카스티야 레온, 아라곤 지역 위주로 적극 진출
- 관광 대국, 스페인의 스마트관광 사례 참고 및 한국 기술을 스페인에 도입
 - 한국은 주52시간제 도입, 연차휴가 소진문화 등으로 관광 산업 수요가 커지고 있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위해 노력 중이므로 관광 선진국인 스페인의 스마트관광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세고비아의 증강현실 스마트 글라스, 딸라베라의 자율주행 미니서브 운행 등
 - 한편 한국도 앞선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관광 기술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이들 서비스를 스페인 유명 관광지에 적용해보는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3-4. 西 Industry 4.0과 韓 4차 산업혁명 정책 간 시너지 도모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페인 정부는 Connected Industry 4.0 정책을 통해 제조업체들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프로젝트 지원
- 2017년 기준 스페인의 제조업 매출 규모는 616,918백만 유로로 전년 대비 약 7.9% 증가
- 스페인은 빠른 시간 내에 제조업 4.0 기술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에너지 산업 발달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9년 상반기, 스페인 기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IT기술 선택
 - 스페인 경제단체연합회(CEOE)와 컨설팅 기업 KPMG가 함께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스페인 기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인재채용이나 국제화 등을 제치고, IT가 1위를 차지 (66%)
 -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73%), 클라우드(43%), 자동화로봇(27%), AI(23%), 머신러닝(14%) 순으로 나타남

- 스페인 정부는 2016년 제조업과 첨단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Connected Industry 4.0 정책을 수립, 제조업의 디지털화에 노력
 - 제조업의 디지털화로 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와 수출 확대를 주목적으로 함
 -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저이자 대출 또는 보조금 지급
- 또한 스페인 정부는 자체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협회 또는 클러스터에 가입하도록 유도, 기술 교육 및 보조금 등 지원 중
 - 2019년 기준 스페인에 위치한 클러스터는 약 90여 개
 - * 산업별 클러스터 수 : 에너지(12개), ICT(12개), 농식품업(11개), 자동차(9개), 기계(9개), 환경(6개), 관광(6개), 항공(4개), 물류(4개), 원자재(4개), 기타(16개)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5G 기술과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접목하여 우수한 기술력 어필
 - 스마트팩토리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5G 기술력이 필수인데 한국의 경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스마트팩토리에서도 선구자 이미지 구축 가능
 - 5G를 스마트팩토리에 도입한 성공 사례를 레퍼런스로 바이어에 신뢰 부여
- 스페인에서 스마트팩토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집중 공략
 - 스페인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적극적인 자동차 산업 발달(유럽 자동차 생산 2위)
 - 스페인 최대 IT기업인 Indra의 경우 analytics, 센서, 로봇 관련 솔루션에 관심
 - 스마트팩토리는 유통물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스페인은 백화점, 슈퍼마켓, 인터넷 쇼핑, 홈쇼핑이 고루 발달되어 수요처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스페인 혁신기업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스페인 정부 디지털 프로젝트 참여
 - 스페인에는 클러스터 또는 협회 형태의 혁신기업연합(AEI)이 약 100여 개 있는데 이들은 자력 또는 정부 지원 하에 정부의 혁신기술개발 프로젝트 공동 수행 중
 - 이들 혁신기업연합과 한국 IT기업의 공통 관심 분야를 매칭하여 합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기술 측면의 시너지와 스페인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

4 진출 시 유의사항

독점계약	일반적인 구매계약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IT 제품 수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 인식기를 제조하는 한국의 M사는 영업 능력이 부족한 현지 바이어와 선불리 1년간 독점유통계약 체결 - 1년간 상당히 저조한 현지 판매 실적과 현지 신규 바이어 발굴도 불가능하여 상당한 손해 감내 ☞ 바이어 매출 규모나 보유 영업권, 영업 능력 등을 고려한 거래 진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여성복 수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A사와 스페인 O사는 오랫동안 거래를 통해 높은 신뢰도가 구축된 상황 - 한국 기업은 바이어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후불대금 조건의 제품 컨테이너 선적 또는 발송 - 바이어 O사는 보내온 제품에 품질 문제 제기, 결국 한국 거래선과 합의 불발로 일반적인 구매계약 취소 - 한국 기업은 제품은 돌려받았으나 제품 출고 및 백업, 기타 부대 비용 등의 손실 감내 ☞ 신뢰가 구축된 바이어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신중한 결제 방법이 필요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	수입자 재무제표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여성복 수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여성복 제조사 A는 여러 차례 거래를 해오던 스페인 바이어 D사에 TT 70/30 조건으로 제품 선적 또는 발송 - 바이어는 고객으로부터 대금 결제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에게 대금 결제를 미루다가 결국 소송으로 감 ☞ 거래선의 영업권과 고객층, 영업 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 재무제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세무조사용 재무제표와 자체 관리용 재무제표가 이중관리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실재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 ☞ 보수적 접근 및 무역보험 가입 필요
현지 바이어 특징 파악	수출 전 수입자 자격 요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내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스페인 바이어는 가격, 구매조건, 스펙 검토에 있어 장시간 소요 - 구매 결정 후 샘플 오더에서 정식구매로 넘어가는 시간도 보통 1~3개월 필요 ☞ 한국기업은 스페인 기업 거래특성을 파악하여 인내심을 갖고 네고에 임하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식품 수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음료 제조사인 P사는 루마니아 상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수입절차에 무지한 바이어와 계약 - 첫 컨테이너 출고 후 바이어는 구매제품에 대한 사전 성분 미확인 및 필요 인증서 미확보로 결국 출고한 1개 컨테이너 shipback (shipback) - 한국 기업은 컨테이너 shipback(shipback)으로 인한 손실을 감내 ☞ 수출 전 거래선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바이어 대응 능력과 수입 경험에 대한 조사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8/US\$백만)	13,206	대한수입액('18/US\$백만)	52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 확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안정에 따른 일반소비자들의 구매력 회복으로 화장품 판매 증가 · 남성용 화장품 수요 확대 추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독일, 이태리 브랜드 현지시장 장악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 납품 · 유럽 대형 화장품 박람회 참가 		
품목명 2	HS Code	2103.90	수입관세율(%)	0%
장류 및 소스류	수입액('18/US\$백만)	1,591	대한수입액('18/US\$백만)	0.27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권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로 고추장 등 한국 식재료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소비자 입맛의 세계화로 아시아 식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 ·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K-푸드 확산, 고추장 및 한국식 소스류 수요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및 유럽계 식품기업 현지시장 장악 · 대(對)아시아 수입의 경우, 태국 및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편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부문 물류업이 발달한 네덜란드나 독일을 통한 우회수출 · Alimentaria 등 현지 대형식품박람회 참가 		
품목명 3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0%
인스턴트라면	수입액('18/US\$백만)	387	대한수입액('18/US\$백만)	2.3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스턴트라면 각광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인스턴트라면 판매 2011년 1,300만 개에서 2015년 4,000만 개로 대폭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llina Blanca, Nestle 등 현지 식품제조업체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 확보 · 한국 및 아시아 제품은 주로 한인중국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산 식품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계 대형유통사 공략 · 스페인 식품가공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현지인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 		
품목명 4	HS Code	8507	수입관세율(%)	0
배터리	수입액('18/US\$백만)	7,279	대한수입액('18/US\$백만)	236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수요 확대 기대 및 한국산 제품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 우수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정부의 스마트국도계획 시행으로 주요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관광지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용 배터리 수요 확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및 이태리산 제품이 널리 사용되며, 중국 저가 제품 소비 확대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공공입찰 참여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또는 해당 기업의 공식 벤더 등록 		

품목명 5	HS Code	3002.90	수입관세율(%)	0%
보놀리눔 특신	수입액('18/US\$백만)	1,427	대한수입액('18/US\$백만)	1.1
	선정사유	· 현지 소비자들의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 확대 기대		
	시장동향	· 2017년 스페인 보놀리눔 특신 시술 건은 전체 성형 시술의 약 60% 이상을 차지, 향후 꾸준한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 브랜드의 비중이 전체의 약 80% 이상 차지하나 최근 일본산 제품 수입도 증가 추세		
	진출방안	· 현지 클리닉과 현지 병원 영업망을 보유한 수입 유통사 및 제조사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 등의 다양한 방법 모색		
품목명 6	HS Code	8711.20	수입관세율(%)	8%
전기 스쿠터	수입액('18/US\$백만)	189	대한수입액('18/US\$백만)	145
	선정사유	· 현지 수요 확대 기대		
	시장동향	· 현지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최근 3년간 수요 급 증가		
	경쟁동향	· 신흥국 저가 제품의 강세 확대 추세이나 유럽 고가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안정적인 상태		
	진출방안	· 한국산 제품의 내구성을 보완하거나, IT 기기와 연결성을 확대하여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카셰어링	선정사유	· 최근 대도시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협업소비를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소비트렌드로 인식하여, 자동차나 사무 공간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음
	시장동향	· 스페인 소비자 중 19%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중
	경쟁동향	· 독일 다임러 그룹의 Car2G, PSA푸조-시트로엥, 르노, 기아 등 다수의 자동차 제조기업이 카셰어링 서비스 출시
	진출방안	· 직접진출 또는 현지파트너를 통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 확산
품목명 2		
비디오게임	선정사유	·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e-sports 시장 형성
	시장동향	· 스페인 비디오게임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3.6억 유로로 전년 대비 16.9% 증가
	경쟁동향	· EA, Sony, Nintendo 등 미국일본기업 시장 장악
	진출방안	· Barcelona Games World 등 현지 전문 박람회 참가
품목명 3		
애니메이션	선정사유	· 스페인 제작사와 한국 스튜디오 간의 협력 사례 다수
	시장동향	· 스페인 애니메이션 산업 연간매출 약 3억 유로 · 스페인 제작사, 유럽 및 중남미 지역 등에 넓은 유통망 보유
	경쟁동향	· TVE, TV3 등 현지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진출방안	· 각종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제작투자사와의 협력방안 강구
품목명 4		
모바일SW	선정사유	· 스페인 및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앱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스페인 국민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90%를 애플리케이션에 할애 · 스페인 국민 중 61%가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사용 중으로,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 인근 유럽 국가 평균 수준(53%)을 상회
	경쟁동향	· 무선인터넷서비스 통신사별 시장점유율(2017.4분기) : 텔레포니카(33.4%), 보다폰(25.9%), 오렌지(25.9%) 순
	진출방안	· 스페인계 글로벌통신사인 텔레포니카와의 기술협력 등을 바탕으로 유럽, 중남미 시장 진출
품목명 5		
차세대 모빌리티 셰어링	선정사유	· 공유 서비스 업체 진출 확대로 전기 스쿠터와 전기 킥보드와 같은 차세대 모빌리티 셰어링 서비스 확대 추세
	시장동향	·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은 최근 3년간 급성장 중으로 2018년 전년 대비 약 71% 증가 · 스페인 전체 인구 중 약 63%가 차세대 모빌리티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음
	경쟁동향	· Uber, Ecootra, Muving등을 중심으로 공유 서비스 제공 중
	진출방안	· 공유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한 현지시장 진출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2020년 GSMA 모바일 국제 전시회(GSMA MWC 2018) 한국관 운영

- 개최기간 : 2020년 2월 24일(월)~2월 27일(목)
- 장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Fira Barcelona Gran Via
- 참가규모 : 우리기업 25개사 내외 (스타트업 포함)
- 내용 :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 파트너 발굴 및 시장 정보 입수
- 특이사항 : 유럽 지역 협업 사업으로 추진(인근지역 바이어 유치)

스페인 창업연수 사업

- 기간 : 2020년 10월
- 장소 :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Telefonica 인큐베이터
- 협력기업
 - 엑셀러레이터 : ISDI(엑셀러레이팅, 투자, 코워킹 등 스타트업 종합 지원)
 - CVC : Telefonica(세계 3위 통신사,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인큐베이터 보유)
- 참가 대상기업 : Telefonica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 기업 3개사
- 사업내용
 - Telefonica 인큐베이터(Wayra)에 4주간 입주, Open Innovation 추진
 - 마드리드 무역관, ISDI 주관 세미나 및 데모 데이 참석
 - 마드리드 무역관이 소개하는 투자가 및 바이어 미팅
 - 주 1회 멘토링 및 무역관이 주관하는 주간회의 참석

2020년 스페인 K-Beauty Show Case 개최

- 시기 : 2020년 3월 16일(월)~3월 18일(수)(3월 12~15일 볼로냐 미용박람회 연계)
- 장소 : 마드리드 소재 호텔 행사장
- 주관 : KOTRA-한국문화원 협업 사업
- 규모 : 볼로냐 미용박람회 전시회 참가기업 중 약 30개사
- 내용 : 1:1 수출상담회 개최, 한국문화원 내 한국 화장품 전시회 및 시연회 개최

El Corte Ingles 협업 Planet Korea 사업

- 시기 : 2020년 상반기 중 4일간
- 장소 : 마드리드 소재 엘 꼬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 백화점 내·외부 행사장
- 주관
 - 행사총괄 : 현대이노션
 - 중소기업 전시관(소비재(화장품, 식품 등)) : KOTRA
 - 한류 체험관 : 현지진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등),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원, KOTRA(중소기업 제품 시연회) 등
- 내용 : 스페인 최대 백화점에 행사장 설치, 1:1 전시상담회 개최, 시연회 등 추진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스페인 총선	2019.11.10	재총선(잠정)
스페인 보궐 선거	2023.5월	
유럽의회 선거	2024.5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U-인도네시아 FTA 무역협정	2019.9.30	브뤼셀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IT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소프트·하드웨어 등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Mobile World Congress)	2020.2.24 ~ 27/ 바르셀로나
의료, 제약	제약 원료, 의약품 등	국제 원료 의약품 전시회 (CPHI Worldwide)	2020.11.5 ~ 7/ 바르셀로나
IT	소프트/하드웨어,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박람회 Smartcity Expo World Congress	2020.11.19 ~ 21/ 바르셀로나
IT	소프트/하드웨어, 빅데이터 등	세계 기술 콘퍼런스 Web Summit	2020.11.4 ~ 7/ 포르투갈

I. 한-스페인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스페인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스페인의 협력 잠재력

- GDP와 인구수 기준, 유럽 5위의 대형 소비 시장
 - 2019년 IMF 자료 기준, 스페인의 GDP는 약 1조 4천억 불로 유럽 5위
 - 2019년 통계청 자료 기준, 스페인 인구는 약 4,700만 명으로 유럽 5위
-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보유, 전략적 파트너십에 적합
 - 한국과 스페인의 GDP 순위는 각각 11위와 13위(IMF), 인구는 각각 28위, 30위 차지(통계청)
- 문화교류,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양국 국민 간 상호 호감 확대
 - 스페인 관광 붐, 스페인 음식 소비 증가로 한국의 스페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으며 스페인에서는 K-팝과 한국화장품이 인기
 - 2018년 10월 발효된,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으로 젊은 층의 상호 방문 증가 예상
- 유럽, 중남미, 북아프리카 등 세 대륙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
 -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 유럽 및 아프리카 진출 유리
 - 한편, 스페인은 역사적 이유로 인해 중남미와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중남미 진출에도 유리한 조건 보유
- 한국과 협력 여지가 많은 자동차, 건설, 신재생에너지가 발달
 - 스페인은 유럽 2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유럽, 미국, 일본의 9개 자동차 제조사가 17개의 생산기지 운영 중
 - * 자동차 제조사 : Seat-Audi, PSA, Ford, Opel, VW, Renault, Mercedes, Nissan, Iveco
 - 건설은 스페인 전체 GDP의 약 5.8%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세계 250대 건설사 중 11개사가 스페인계
 - 스페인은 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풍력발전이 있어 독일, 미국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기술 자랑
 - * 2018년 기준, 스페인 소비전력의 17%가 신재생이며 2030년까지 42% 달성이 목표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준비 중
 - 2019년, 스페인의 5G 준비율은 유럽 평균 14%의 2배 이상인 30%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관광을 포괄하는 스마트국토 정책 추진
 - 제조업과 IT 산업의 결합한 “Connected Industry 4.0” 정책 추진

 **주요국의 대(對)스페인 경제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2018년 3개년 누적 기준, 프랑스는 스페인의 1위 수출국 · 프랑스 전력공사 EdF 社의 자회사 RTE 社와 스페인 INELFE 社 합작으로 스페인 가티카-프랑스 쿵네자이스 간 해저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진행 중 * 양국 간 상호 연결 송전용량이 기존 2,800MW에서 5,000MW까지 늘어날 예정 · 프랑스-독일-스페인, 차세대 유럽 전투기(FCAS) 공동 개발 MOU 체결(2019년 6월)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2018년 3개년 누적 기준, 독일은 스페인의 1위 수입국 · 2016~2019년 3월 누적 기준, 독일은 스페인의 두 번째 투자유치국 · 독일-스페인 청년 고용에 관한 MOU 체결(2013년 5월)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이우-스페인 마드리드를 잇는 세계 최장 화물열차 운행 중(2014년 11월 개통) · 2018년 제3 시장 진출 협력, 인적 교류 확대, 첨단소재 개발 협력 등 3개 MOU 체결 · 2018년 스페인산 디지털용 포도와 돼지고기 수출 관련 협정 체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스페인 연구개발혁신청, 나노의학 공동 연구 진행 · 2017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 2013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스페인 무역투자진흥청(ICEX) MOU 체결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소프트社-페이스북-텔시우스社, 미국 버지니아주-스페인 빌바오 간의 초고속 해저 케이블 ‘마레아 (MAREA)’ 구축(2017년 9월 완공) 및 운영(2018년 2월 시행) · 미2016~2019년 3월 누적 기준, 미국은 스페인의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등급 * 건설, 토목공학, 도매 및 무역 중개, 정보서비스, 전력 공급 등이 주요 투자 분야

 **한-스페인 경험 관계**

- 2011년 FTA 체결 후 협력 분야 다변화 중
 - 2016년, 한-스페인 R&D 자금 조달 협력 MOW 체결
 - * 한국 기술진흥원(KIAT)-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
 - 2017년, 한-스페인 인프라 교통 협력 MOU 체결
 - * 한국 국토교통부(MOLIT)-스페인 국가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 2017년, 한-스페인 정보기술 협력 MOU 체결
 - *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P)-스페인 정보사회와 디지털부(Sociedad informacion y Agenda Digital)
- 스페인은 한국의 30위 수출국이자 30위 수입국(2019년 1~7월 기준)
 - 2018년, 항공기와 육류 수입 확대에 힘입어 양국 교역액 50억 불 달성

- 무역수지는 최근 3년간 한국의 흑자였으나, 2019년 들어 흑자 폭 감소
- 2019년 들어 수출은 하강, 수입은 증가

한국 대(對)스페인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교역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7월
수출	금액	2,171	2,329	2,791	3,027	1,706
	증감률	5.0	7.3	19.8	8.5	-7.3
수입	금액	2,355	2,005	1,953	2,504	1,696
	증감률	-19.1	-14.2	-2.6	28.2	28.7
총교역	금액	4,526	4,334	4,744	5,531	3,402
	증감률	-8.7	-4.2	9.5	16.6	7.7
무역수지	금액	-164	324	838	523	1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최근 5년간 한국의 대(對)스페인 투자 분야 다변화 및 투자규모 확대
 - 과거 한국의 대(對)스페인 투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대기업 판매법인 설립이 주를 이룸
 - 최근에는 제조업(미원홀딩스, 동국실업), 건설업(GS 건설), 운수업(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신재생에너지(한화에너지) 등으로 투자 분야 다변화 추세

한국의 산업별 대(對)스페인 투자

(단위 : 천 달러)

1980~2019년 6월 총누적		2015~19년 6월(최근 5년)	
산업명	투자금액	산업명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70	광업	2,238
광업	57,967	제조업	11,732
제조업	264,747	건설업	96,095
건설업	390,724	도매 및 소매업	1,745
도매 및 소매업	196,086	운수 및 창고업	8,608
운수 및 창고업	109,244	숙박 및 음식점업	907
숙박 및 음식점업	4,041	정보통신업	465
정보통신업	14,045	부동산업	45,364
금융 및 보험업	39,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부동산업	45,36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60	N/A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7		
N/A	26		
총합	1,122,693	총합	167,50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나. 한-스페인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스페인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 대두

- 스페인은 무역과 투자 모두 'G2+유럽 역내' 쏠림현상이 심한 편
 - 스페인의 10대 수입국은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국가
 - * 스페인 무역 EU 역내 비중(2019년 상반기) : 수출(72.7%), 수입(42.7%)
 - 한편 투자진출 현황을 보면 역사적, 문화적 요인으로 진출이 활발한 북중남미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위주로 투자
 - * 국별 비중(2018년) : 멕시코(22%), 미국(14.2%), 네덜란드(13.2%), 영국(7.6%), 브라질(7.5%)
- 폭넓은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차원에서 아시아의 중요성 부각
 -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유럽, G2 위주에서 벗어나,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음
 - * 산탄데르(금융), 페로비알(건설), 이베르드롤라(신재생) 등 주요기업 영국사업 축소 예정
 - 특히 거대한 시장규모, 활발한 신기술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2018년 3월, 스페인 정부에서는 “2018~2022 대(對)아시아 전략적 비전” 발표
 - 중점협력분야로 도시개발, 무역, 관광, 기술, 안보, 신재생에너지를 꼽음
 - 주요목표로는 1) 브렉시트에 대비 아시아와의 교류 확대, 2) 아시아 기업의 대서(對西) 투자유치 확대, 3) 아시아 국가와 민간 네트워크 강화 등 제시
 - 특히 한국과는 신재생에너지, R&D,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격변기를 맞아 한-서 경험 지평 확대 필요

- 한국과 스페인 모두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 중
 - 西 정부의 5G 활성화 정책 발표, 2020년 중 700MHz 주파수 경매* 2019년 기준 스페인의 5G 인프라 준비율은 유럽 평균 14%의 2배 이상인 30%
 -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스마트시티는 물론 스마트팜, 스마트관광 등 전 국토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원 중
 - 스페인 정부는 텔레포니카, 인드라 등 스페인 IT 대기업과 협력하여 제조업과 IT 산업을 융합한 Industry 4.0을 지원 중이며 스페인 기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IT 기술을 꼽음
 - * 2019년 상반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기업들은 IT를 우선투자 1위라고 답변(66%)
- 신재생에너지, 제3국 진출, 스타트업 등 스페인과 경험 유망 분야 다대
 - 스페인은 9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 신재생 도입에 적극적인 한국과의 협력이 유망
 - * 2018년 기준, 스페인 발전의 약 17%가 신재생이며 2030년까지 42% 달성이 목표

- 스페인은 건설업이 발달하여 한국과 제3국 프로젝트 수주가 유망하며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중남미로 수출하는 중개(중계) 무역도 발달
 - * 2017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50대 건설기업 중 스페인 기업이 11개사
- 저렴한 물가, 중남미와의 연결성, 대기업의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등으로 인해 스페인은 유럽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허브 중 하나로 부상

한-스페인 디지털 강중국(強中國) 동반 진입

- 한국과 스페인은 상호 아시아와 유럽 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적격 국가
 - 2017년 세계은행 자료 기준, 한국의 GDP 순위는 14위, 스페인은 15위이며 한국 통계청 자료 기준, 한국의 인구 순위는 28위, 스페인은 30위
 - GDP와 인구수 규모가 비슷하여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보다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하기 쉬운 상황
- 한국과 스페인은 ‘디지털 강중국(強中國)’ 진입을 위한 파트너로 적합
 - 한국과 스페인은 상위권의 경제규모와 중상위권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소위 ‘강중국(強中國)’으로 분류
 - 5G, 스마트시티, Industry 4.0 등 전 국가적 디지털 아젠다에서 협력하여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중국으로 동반 진입 추진

한-스페인 전략전 경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K-Package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국책 사업 교류 확대

① 스마트시티를 넘어 스마트국토 구축

(정책 수요) 2020년까지 스마트국토 조성에 1억 7천만 유로 예산 편성

- 스페인 정부의 스마트국토 계획은 크게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관광으로 분류 가능
- 스페인 정부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5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015년부터 3개년 단위로 예산 투입 중
 - 5가지 정책 목표는 1) 최첨단 기술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 2)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 수집 및 처리 시스템 구축, 3) 수집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 4) 스마트시티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 5) 스마트 기차역, 스마트 항공, 스마트 공항 등 스마트 인프라의 규격화로 요약
 - 2015~2017년, 3년간 약 6,300만 유로의 사업비를 투입,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총 14개 프로젝트 진행하였음
 - * 도시교통 및 행정 관리 시스템 개선, 공원 자동관개 시스템 구축, 공공 조명과 폐기물 처리 서비스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2018~2020년, 3년간 동안은 약 3,000만 유로를 투입, 인구 약 20만 명 이상 도시에서 150개 건물에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진행 중
- 스페인은 EU에서도 농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스마트팜 지원 중
 - 스페인 정부는 농림식품, 삼림, 농촌지역 디지털화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정보격차 축소, 데이터 사용 활성화, 기업 활동 장려 및 신사업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
 - 스마트팜은 지방 자치주에서 주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중으로 혁신 기계 및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농가에게는 심사를 거쳐 도입 자금을 대해 보조금 지급
- 한편 스페인은 관광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업과 IT 신기술을 결합하는데도 적극적
 - 2018~2020년 기간 동안 약 7,400만 유로의 사업비를 투입, 약 84개 도시에서 25개 프로젝트 진행예정
 -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폐기물 처리와 관광 인프라 자동화 시스템 확대, 관광지 공공 조명 및 자동관개 시스템 개선 등이 있음

(한국 역량) 스마트시티 시범 조성으로 스마트국토 프로젝트 본격 시동

- 정부에서는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 등의 3대 전략을 포함하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
 - 세종시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및 환경, 거버넌스, 문화 및 쇼핑, 일자리 등 7대 서비스에 최적화된 공간을 계획
 - 부산시는 급격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과 수처리 사업 등 新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
- 2019년 정부는 스마트시티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703.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42.6억 원) 393.4% 증가한 수치
- 주요 기업도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 중으로 LG CNS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인 ‘시티허브’를 출시하였으며 한글과컴퓨터그룹은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인 ‘디지털 시민 시장실’을 서울시에 적용,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협력 방안) 설계부터 적용까지, 스마트시티 생태계 공동 조성

- 스마트시티 정책 교류 및 프로젝트 상호 참여로 우수 사례 벤치마킹
 - 한국은 IT기술과 인프라가 발달되었고, 스페인은 친환경 정책과 정보공개에서 발달된 만큼 상호 강점을 교류한다면, 시너지 예상
 -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개발계획과 한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운영계획 등 양국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벤치마킹
 - 양국 모두 스마트시티 도입 초기 단계로 법규 수정이나 새로운 법령 제정이 필요하므로 양국 사례 비교연구 기회 제공
- 스마트시티나 스마트 인프라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 및 장비 공동연구
 - 스마트시티의 핵심 부품인 IoT 센서를 비롯, 스마트 가로등, 교통관제시스템 등 공동 연구 개발
- 스마트팜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 및 파일럿 프로젝트 공동 추진
 - 스마트팜은 고령화된 농촌 인구의 IT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애로가 있어 교육 프로그램 및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기회 제공이 중요
 - 한국과 스페인 양국 정부 및 민관기업이 TFT를 구성, 지방 순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도 공동 추진
- 관광 대국, 스페인의 스마트관광 사례 참고 및 한국 기술 스페인에 소개

- 한국은 주52시간제 도입, 연차휴가 소진문화 등으로 관광 산업 수요가 커지고 있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노력 중이므로 관광 선진국인 스페인의 스마트관광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세고비아의 증강현실 스마트 글라스, 딸라베라의 자율주행 미니서브 운행 등
- 한편 한국도 앞선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관광 기술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이들 서비스를 스페인 유명 관광지에 적용해보는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2 방위 산업 협력 강화

(스페인 현황) 방위 산업 매출액 약 54억 유로의 거대 시장

- o 정부의 방위 사업 확대 노력
 - 2018년 기준 스페인 정부의 방위사업 예산은 약 8,435백만 유로인데 2024년까지 약 18,000백만 유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
- o 스페인의 방위 산업 매출 규모는 2017년 기준 5,379백만 유로
 - 방위 산업 매출액 증가율 : 2015년(3.8%), 2016년(0.7%), 2017년(7.2%)
 - 부분별 매출액 비중 : 항공(68%), 방위 전자 및 IT(9.2%), 해상(7.7%), 육상(6.5%), 무기(5.1%), 기타(3.5%)
- o 2017년 방산 수출액은 4,346백만 유로이며 2013~2017년 기준 스페인은 세계 7위의 무기 수출국이자 전 세계 무기 수출의 약 3% 차지
 - 주요 수출 지역은 유럽으로 총 수출의 약 85%에 해당
- o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항공 산업의 경우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양한 기업들로 구성된 에코 시스템 보유

스페인에서 활동 중인 주요 항공 방위 기업

기업명	홈페이지	개요	국적
Airbus	www.airbus.com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기업	프랑스
Leonardo	www.leonardocompany.com	항공, 방위부문 IT 서비스 솔루션 기업	이탈리아
Thales	www.thalesgroup.com	항공, 방위 부문 보안 및 IT 솔루션 서비스 기업	프랑스
Rheinmetall	www.rheinmetall-defence.com	항공, 방위 보안 기술 서비스 업체	독일
BAE Systems	www.baesystems.com	항공, 방위 시스템 기술 제조 및 솔루션 기업	영국

- o 해상 분야의 경우 스페인 토종 선박 제조사들이 두드러지는데 그 중 나반티아(Navantia)가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

스페인에서 활동 중인 주요 해상 방위 기업

기업명	홈페이지	개요	국적
Navantia	www.navantia.es	2004년 설립된 선박 제조사	스페인
Freire Shipyard	www.freireshipyard.com	1958년 설립된 선박 제조사	스페인
Rodman	www.rodman.es	1974년 설립된 선박 제조사	스페인
Black Bull Military	www.blackbull-group.com	보안, 군사 부문 물류 서비스 기업	스페인
SAES	www.electronica-submarina.es	잠수함, 해상함정 IT 기술 서비스 솔루션 기업	스페인

- 육상의 경우 탱크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83.5%로 가장 높음
 - 부분별 매출 비중 : 1위 탱크(83.5%), 2위 정보시스템(7.1%), 3위 주력 전차 Leopard 2E(5.7), 8x8 탱크(3.7%)

스페인에서 활동 중인 주요 육상 방위 기업

기업명	홈페이지	개요	국적
GDELS	www.gdels.com	탱크 추적, 포병 시스템 기술 기업	독일
Iveco Espana	www.iveco.com	일반 자동차, 방위 특수차 제조사	이탈리아
Indra	www.indracompany.com	스페인 최대 방위, IT 솔루션 기업	스페인
Urovesa	www.urovesa.com	국방, 자동차 제조사	스페인
SDLE	www.sdle.info	전갑차 등의 부품 수리 및 IT 기술 솔루션 기업	스페인

(한국 역량) 경쟁력 지속강화로 기술추격형에서 기술 선도로 전환 중

- 2017년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방위 산업은 선진국 대비 기술 87%, 품질 90% 수준으로 기술추격형에서 기술 선도로 전환 중
- 2019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11위를 기록
 - 2014~2018년 5개년 기준, 전 세계 무기 수출 가운데 1.8% 차지
 - 2014~2018년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09~2013년보다 94% 증가
- 유럽 수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례로 한화디펜스는 2015년 폴란드에 K-9 자주포 120대를 수출했고, 2017년에는 노르웨이 국방부와 총 2,452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 장갑차 수출 계약 체결
- 한편 2018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100대 방산업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업체 중에는 4개사가 포함
 - * 한화테크윈(49위), LIG넥스원(60위), 대우조선해양(85위), 한국항공우주산업(98위)

- 2017년 기준 방산 분야 총 매출액은 약 12.8조 원이었으며, 분야별로는 항공유도(4.1조 원), 탄약(2.5조 원), 화력(1.7조 원), 함정(1.6조 원), 통신전자(1.4조 원), 기동(1.3조 원), 기타(0.2조 원) 순임
- 방위사업청은 FA-50 경공격기(T-50 훈련기), KT-1 기본훈련기, 군수지원함 등을 유력한 수출 품목으로 꼽음

(협력 방안) 기술교류 및 공동개발로 방산 산업 기술경쟁력 향상

- 절충교역(offset order)을 기술 이전 및 장비 도입 기회로 적극 활용
 - 스페인은 방산 수출 세계 7위로 알 수 있듯이 방사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스페인으로부터 방산물자 도입 기회 다대
 - 절충교역 시에는 옅셋 수출뿐 아니라 스페인 유망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장비 도입 등을 적극 추진,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 도모
- 양국 항공 산업 교류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 및 훈련기 공동 개발
 - 스페인의 항공 산업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가능한 전방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에서 항공 부분 매출액이 약 70% 차지
 - 한편 KAI는 훈련기 수출 사례가 이어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 프랑스-독일-스페인 협력을 벤치마킹하여 양국 간 전투기 개발 추진
 - * 프랑스-독일-스페인, 차세대 유럽 전투기(FCAS) 공동 개발 MOU 체결(2019년 6월)

나. [B2B] 차세대 산업 협력 강화

①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현황) 제조업과 IT신기술을 융합하는 Industry 4.0 적극 추진

- 2016년 스페인 정부는 제조업과 첨단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Connected Industry 4.0 정책을 수립, 제조업의 디지털화에 노력
 - 제조업의 디지털화로 경쟁력 향상, 부가가치와 수출 확대가 주목적
 -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저이자 대출 또는 보조금 지급
- 스페인 정부는 “Activte Industry 4.0”라는 프로그램을 수립, 제조 기업 대상 디지털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 산업 통상 관광부가 총괄하고, 지방 자치주와 교육기관이 협력
 - 최소 50시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기업의 현재 디지털화 수준을 파악하여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지원

- 스페인 정부는 R&D와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과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Reindustry’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저금리 대출 제공 중
 -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에코 시스템 구축, 탈탄소화, 안전과 품질 공정 혁신, 생산 공정 혁신 분야에 집중 지원 중으로 최소 10만 유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80%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
 - Reindustry 프로그램은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장비 도입 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0만 유로 이상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저금리 은행 대출 지원

(기업 수요) 생산 공장, 물류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 진행 중

- 2019년 상반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기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IT 기술을 선택
 - 스페인 경제단체연합(CEOE)과 컨설팅 기업 KPMG가 함께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스페인 기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인재채용이나 국제화 등을 제치고, IT가 1위를 차지 (66%)
 -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73%), 클라우드(43%), 자동화로봇(27%), AI(23%), 머신러닝(14%) 순으로 나타남
- 자동차부터 소비재, 생산부터 물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 중
 - 포드(Ford)사는 발렌시아 공장의 다양한 자동차 생산라인을 하나로 통합한 후 약 2천여 개의 로봇을 설치, 로봇이 자동차에 부착된 라벨을 읽고, 이에 맞게 조립 중
 - 케이에이치 요레다(KH Lloreda)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세계 제조기업으로 생산부터 포장까지 전 라인을 로봇화하여 자동 진행
 - 아스티(Asti)는 물류 시스템 솔루션 기업으로 물류 창고 내 무인 팔레트 트럭을 설치, 시간절감과 업무 효율성 극대화 달성

(한국 역량) 정부 혁신기술 예산 대폭 확대, 기업도 현장 도입 중

- 정부는 신성장을 위한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목표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
 - 의료, 제조, 교통 등 총 12개 산업별 과제를 선정함
-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2020년 예산은 2019년보다 9.2% 증가한 16조 2,147억 원이며 이 가운데 R&D 예산이 절반 가까이 차지(7조 9,473억 원)
 - 예산의 주요 사용처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 강화, 시스템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가 핵심

-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발표한 2012~2016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보면, 인공지능(2,003건), 사물인터넷(1,631건), 3D 프린팅(562건), 클라우드(479건), 빅데이터(442건) 순
- 대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발히 도입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으로까지 퍼져 나갈 전망
 - 2019년,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프로젝트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봇'과 헬스케어 로봇인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공개
 -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5월 국내 업계 최초로 '통합 스마트 선박 솔루션'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LNG선을 건조함

(협력 방안) 5G 선도자 후광효과를 활용, 유망 분야 집중 협력

- 5G 기술과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접목하여 우수한 기술력 어필
 - 스마트팩토리를 위해서는 5G 기술력이 필수인데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여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선도자 포지셔닝 가능
 - 5G를 스마트팩토리에 성공 사례를 레퍼런스로 바이어에 신뢰 부여
- 스페인에서 스마트팩토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집중 협력
 - 스페인은 스마트팩토리에 적극적인 자동차 산업 발달(유럽 자동차 생산 2위)
 - 스페인 최대 IT기업인 Indra는 analytics, 센서, 로봇 관련 솔루션 관심
 - 스마트팩토리는 유통물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스페인은 백화점, 슈퍼마켓, 인터넷 쇼핑, 홈쇼핑이 고루 발달되어 수요처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스페인 클러스터 및 혁신기업연합과 협력, 디지털 프로젝트 참여
 - 스페인에는 클러스터 또는 혁신기업연합(AEI)이 약 100여 개 있는데 이들은 자력 또는 정부 지원 하에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 수행 중
 - 이들 클러스터 또는 혁신기업연합과 한국 IT기업의 공통 관심 분야를 매칭하여 합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기술 측면의 시너지 창출과 스페인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

2 5G 선도국 진입

(정책 현황) 유럽 5G 준비율 상위 국가로 향후 리더 자리 유지 목표

- 스페인은 인구 4,600만 명, GDP 1.4조 불의 대형시장으로 추후 5G를 사용할 잠재 인구와 IT 산업규모도 유럽 상위권
 - 2019년 상반기 기준, 스페인의 5G 준비율은 30%로 유럽 회원국 중 8위

- 스페인 정부는 5G 활성화 정책인 “National Plan 5G 2018~2020” 수립
 - 2018년, 3.6GHz~3.8GHz 대역 주파수를 3대 통신사(텔레포니카, 보다폰, 오렌지)에 경매 완료, 2020년 700MHz 대역 주파수를 경매 예정
 - 5G 주파수 관리, 인프라 투자 등 제도 및 인프라 정비에 힘쓰는 한편 자율주행, 원격 진료, 드론을 통한 운송 인프라 제어 등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 진행 중

(통신사 현황) 3대 통신사, 5G를 활용한 다양한 시범 서비스 제공 중

- 텔레포니카(Telefonica) : 2020년부터 본격 상용화 계획 중으로 마드리드로부터 100~150km 가량 떨어진 중간규모 도시인 세고비아(인구 5만)와 딸라베라(인구 10만)에서 5G 활용한 서비스를 운영 중
 - 세고비아 : 노키와와 협력, 5G 증강현실을 이용한 관광 서비스 제공
 - 딸라베라 : 에릭스와 협력하여 자율 주행 미니서브 운행 중
- 보다폰(Vodafone) : 2019년 6월 화웨이와 협력하여 스페인 최초로 스페인 16개 도시에 5G 이동 통신 서비스 개시
 - * 16개 도시 :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아, 빌바오, 말라가, 사라고사, 빅토리아, 산세바스티안, 꼬루냐, 비고, 히혼, 뽀블로나, 로그로냐, 산탄데르
- 오렌지(Orange) : 바르셀로나, 세비아 등 스페인 7개 도시에 5G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카, 산업용 로봇 등 파일럿 서비스 제공

(일반 기업) 금융, 제조, 농업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5G 기술 도입 중

- 산탄데르(금융) :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Smart Red 5G 오피스’를 마드리드에서 시범 운영
- 세앗(자동차) : 5G의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 차량과 교통인프라 간의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 및 공유하는 시범 서비스를 바르셀로나에서 시범 지원 중
- 쉐페트라(스마트팜) : 5G를 이용한 토지 측량 기술 서비스 제공 중

(한국 역량) ‘세계 최초’ 타이틀에 이어 ‘세계 최고’ 타이틀 겨냥

- 2019년 4월 3일, 한국은 5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 GSMA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세계 5G 가입자는 약 213만 명이며 이 중 한국 가입자가 약 165만 명으로 77.5%를 차지
- 2019년 4월, 한국 정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5G+ 전략’을 발표

- 2022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5G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힘
- '5G+ 전략'을 통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 원, 수출액 730억 달러, 일자리 6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함
- 국내 이동통신 3사(SKT, KT, LGU+)는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2019년 내 기지국 23만 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

(협력 방안)

- 한국의 한발 앞선 경험을 'Refernce'로 신뢰도 고양
 - 한국은 2019년 4월 5G 상용화를 개시, 세계 최초 5G 서비스 국가로 등극
 - 따라서 한국이 First Mover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홍보하여 스페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음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진출로 유럽 편향 구도 돌파
 - 스페인은 파트너 선정 시 유럽 역내 유력 기업인 노키아, 에릭슨, 도이치 텔레콤 등을 선호하며 하드웨어는 화웨이 같은 중국기업도 선호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인지도 열세를 극복하기 힘들므로, 대기업(KT, SK, LG, 삼성, LG 등)과 동반진출이 효과적
- 유망 분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동통신증폭기, 스마트팩토리 등이 있음
 - 스페인은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이 활발
 - 스페인은 고립지역이 많아 전 국토에 고르게 5G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공공 장소에서 증폭기 수요도 높음
 - 西 정부와 민간업계 모두 제조업 현장에 IT 기술 도입에 관심이 높음

③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스페인 환경) 높은 국제화 수준, VC 투자 확대, 타 지역과의 연결성, 저렴한 창업비용 등을 앞세워 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 중

- 국제화 : 2017년 Startup Genome 자료 기준 서울의 국제화 수준은 2.1인 반면, 바르셀로나의 국제화 수준은 6.4기록
- 투자 : 2018년, 스페인의 VC 투자 규모는 약 12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44% 증가, 투자한 회사 수는 약 3,415개로 전년 비교 약 4% 증가
 - 투자 분야별로 비중을 보면, 1위 통신(35%), 2위 관광(15%), 3위 물류·운송(14%), 4위 핀테크(8%), 5위 건강(5%) 순

- 연결성 : 언어적 동질성과 역사적 관계 때문에 중남미와 유대관계가 깊어 중남미 진출 활발, 지리적 이점으로 유럽, 아프리카 진출도 유리
- 창업비용 : 인근 유럽국 비교 물가가 저렴하여 창업비용이 낮음
 -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유럽 도시별 생계비 지수 순위에서 각각 55위, 53위 기록, 런던(4위)이나 베를린(32위) 등과 같은 주요 스타트업 허브비교 사업비용과 생활비 저렴한 편(Expatisstan, 2017년)
- CVC : 스페인 대기업,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적극 추진 중
 - 텔레포니카(Telefonica) : 西 최대 통신회사로 “Telefonica Open Future”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약 1,700개 스타트업 지원
 - 이베르드롤라(Iberdrola) : 스페인의 대표 전력 기업으로 “Perseo”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기회 부여와 지분 투자 등 추진 중
- 대형이벤트 :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 바르셀로나)와 4YFN(바르셀로나), South Ummit(마드리드) 등과 같은 스타트업 전문 이벤트 매년 개최

(한국 역량) 우수한 인적자원과 창업열기에 힘입어 경쟁력 강화 중

-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벤처기업 수는 매년 증가 중
 - 벤처기업 수 : 33,289개(2016년), 35,187개(2017년), 37,000개(2018년 추정)
 - 2018년 벤처기업 수는 2009년도(18,893개)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임
- 2012년부터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투자액 : 2조 1,503억 원(2016년), 2조 3,803억 원(2017년), 3조 4,249억 원(2018년)
 - 2019년 8월 기준, 1,109개사에 2조 7,944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937개사, 2조 2,268억 원) 25.5% 증가한 수치임
-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9개(2019년 06월 기준)로 독일과 함께 세계 5위
 - 유니콘 기업 :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블루홀, 위메프,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아놀자, 지피클럽
 - 이 외에도 게임 회사 유저 수 4억 명의 크래프톤(배틀그라운드), 1,700만 고객을 보유한 버즈필(광고 플랫폼) 등이 국제시장에서 선전
- 애드테크와 게임 부분에서는 세계 Top 수준의 에코시스템 보유
 - 애드테크 : 2018년 한국 광고 시장 총 규모는 125억 달러로 세계 7위, 2018년 Dable사 5.6백만 불 투자유치, 2019년 Madup사 12백만 불의 시리즈 B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 성공 사례 다수

- 게임 : 한국의 게임 산업 규모는 세계 4위이며 약 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게임 유저는 28.9백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39%가 온라인 게임 콘텐츠를 시청함
-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등과 함께 준비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발표
 - 정부는 총 2조 9천억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해당 대책은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5,000개사와 지방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육성을 목표

(협력 방안) 현지창업 및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유럽 현지화 추진

- 스페인 현지 창업으로 Born European 스타트업을 지향
 - 스페인 현지에서 창업을 하면,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및 중남미 시장까지 겨냥할 수 있어 비즈니스 국제화에 유리
 - 스페인 투자자들은 현지 거점이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현지에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바이어에게도 큰 장점으로 작용
- 텔레포니카, 이베르드롤라 등 스페인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기업 기능의 수직적 분해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중요성 증가
 - 각각의 대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Pain Points)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Prin-Killer)를 제안
- 대형 스타트업 이벤트에 참가하여 인지도 및 네트워킹 확대
 -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4YFN(바르셀로나), South Summit(마드리드), Web Summit(리스본)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 중
 - 대형 이벤트는 소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기회를 제공하여 (자사들) 더 널리 알리고, (경쟁사와 시장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④ 차세대 모빌리티 선도

(스페인 현황) 제조업체는 차세대시장에 대응하여 전기차와 자율차 개발 중이며 소비자는 전기차 구입 증가

- 스페인은 유럽 2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8개 회사가 17개 공장 운영
 - 2018년 자동차 생산 대수는 총 약 2,819,565대로 독일에 이어 2위
- 한편 수요 측면을 보면, 최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

최근 3년간 전기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추이

2016년		2017년		2018년	
판매대수	증가율(%)	판매대수	증가율(%)	판매대수	증가율(%)
34,551	67.2	63,000	82.3	87,586	39

자료 : Anfac

- 주요 자동차 메이커, 차세대 자동차 생산을 위해 활발히 기술 개발
 - BMW : 운전자와 주변 환경 간에 상호 작용하고, 운전자의 음성 및 움직임을 차량운행에 반영한 전기 자율 주행차 개발 중
 - SEAT : 교통신호 반응, 장애물 관리, 기타 차량과의 정보교환 등 5G를 활용한 신기능을 도입한 미래형 콘셉트카 시범 운행 중
 - PSA : 차량, 보행자, 인프라 간의 교통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운행에 필요한 결정을 자동차가 내릴 수 있게 하는 기술 개발 중
- 자동차 클러스터,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
 - 자동차 클러스터는 총 9개로 약 690개 기업과 2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
 - 클러스터 사무국에서는 연구기관과 협력, 입주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저금리 자금 대출 지원
- 전기 스쿠터와 전기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 증가 추세
 -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요 급 증가 추세
 - * 최근 3년간 퍼스널 모빌리티 증가율 : 2016년(128.5%), 2017년(211.2%), 2018년(71.8%)
 -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는 eCooltra, Muving, Movo 등이 있음

(한국 역량) 차세대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부품 개발도 활발

- 차세대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착수
- 현대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에 적극 투자 중
 -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 23개 모델 출시 예정
 - 아일랜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앵티브(Aptiv)와 합작법인 설립을 진행 중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침
-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1~5월 기간 중 전기차 배터리 순위에서 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4위, 7위, 9위를 차지
- 이 외에도 현대모비스, 만도, 후성, 엘앤에프, 에코프로, 우리산업, 한온시스템 등과 같은 국내 전기차 부품 관련 업체들이 신기술 개발, 공장 신축 등으로 적극 투자 중

-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부품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4조 원을 시설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발표
- 후성은 전기차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인 육불화인산리튬(LiPF6)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 현재 폴란드에 공장 신축을 위해 약 4억 즈위티(약 1,200억 원)을 투자한 상태임
- 엘엔에프는 2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생산 기업으로 작년 기준 1만5천 톤 생산량을 2019년 하반기까지 2만5천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약 846억 규모의 설비 투자

(협력 방안) 클러스터 투자, 공유서비스 협력 등 진출방안 다변화

- 글로벌 파트너링으로 맞춤형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 스페인에는 9개의 자동차 메이커가 있어 이들 기업이 개발 중인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
 - 다만 현지 거점이 없는 중소기업은 직접 공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페인 Tier1 기업들과 협력하여 진출하는 방안이 유망
- 스페인 자동차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진출 고려
 -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관련 인재 및 부품 확보가 용이하여 자동차 클러스터가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음
 - 특히 북부 CEAGA 클러스터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우수 클러스터로 인증받은 곳으로 스페인뿐 아니라 남서유럽 진출에 유리한 위치
 - 유럽 차세대 자동차 개발의 심장부인 클러스터에 입주한다면, 신기술 개발, 대기업 GP 기회 창출, 유럽 지역 수출이라는 1석 3조 효과 가능
- 스페인 현지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업체와 협력
 - 스페인 대도시에는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
 - 모빌리티 업체는 대부분 전기차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혹은 전기차 부분에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파일럿 프로젝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공유 서비스 업체와 협력은 업계 내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
- 경쟁국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진출
 - 스페인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일본과 대만산 제품이 선전하는 중이므로 이들 제품과 차별화된 모델로 접근 필요
 - 예를 들어 공유 서비스 모델은 내구성이 중요하므로 내구성을 강화하거나 IT기기와의 연결성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

5 소비재 교역 확대

(한류)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류 상품 관심 확대 추세

- 화장품 : 스페인 최대 백화점과 대형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전문코너 신설 및 운영 중
 -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 : 스페인 최대 백화점으로 한국 화장품 코너를 신설, 아미코스메틱, 씨엘포 사의 마스크 팩 등 페이스 제품 위주 판매
 - 뿌리모르(Primor) : 화장품 전문 매장으로 토리모리, 홀리카 홀리카 마스크 팩, 스킨케어 제품 판매 증으로 가성비 좋다는 반응
- 식품 : 스페인 주요 슈퍼마켓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국라면, 음료수 등의 판매 확대 추세
 - 메르까도나(Mercadona) : 스페인 최대 슈퍼마켓 체인으로 한국 OKF사의 알로에베라 건강 음료 판매 중
 - 이베로치나(Iberochina) : 스페인 최대 아시아 식품 수입유통사로 농심, 삼양 라면을 연간 4 컨테이너 구매 중

(트렌드) PB(Private Brand)와 이커머스 시장 지속 성장 중

- 스페인 최대 슈퍼마켓을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의 PB 비중 확대 추세
 - 저렴한 가격에다가 최근 향상된 품질까지 앞세워 PB 수요 증가
 - 2017년 기준 주요 유통업체의 PB 비중은 Lidl(82.9%), Mercadona(58.2%), Dia(48.4%), Consum(26.8%), Eroski(25.8%), Carrefour(21.9%)로 조사됨
-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온라인 구매도 가파르게 성장
 -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 2016년(25.4%), 2017년(28.1%), 2018년(26.9%) 기록
 - 특이한 것은 해외구매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전체의 50.7% 차지

(한국 역량) 정부에서 '5대 유망 소비재'를 선정, 집중 지원

- 한국은 소비재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여 소비재 경쟁력이 높은 편이며 신제품 출시도 활발한 편
- 한국 소비재 중에서도 특히 화장품과 식품류의 경우 동남아,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미주, CIS에서도 인기몰이 중
-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5대 유망 소비재'인 화장품, 패션, 생활 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을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하고자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

- 5대 소비재의 수출액은 200억 달러(2014년)에서 277억 달러(2018년)로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은 3.5%(2014년)에서 4.6%(2018년)로 증가
- 수출액 목표는 2020년 300억 달러, 2022년 350억 달러로 설정
- 5대 소비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9년에만 1,95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무역보험 지원 규모 확대(8조 원, 66.7% 증가), 수출보험 할인율은 확대(25% ⇒ 35%)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기능성 화장품 소재, 고급 의류 소재, 생활 산업 고도화 기술에 1,100억 원(산업부), 반려견 간식 등 가공식품 개발에 160억 원(농식품부), 국가 신약 개발 등에 690억 원(복지부) 투입 예정

(협력 방안)

- ‘Made in Korea’를 넘어 ‘Made by Korea’로 브랜드 가치 상승
 -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국 제품임을 강조, 신홍국산과 차별화
 - 신홍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이 만든 제품(Made by Korea)’임을 강조하여 프리미엄 이미지 유지
-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비, PB 제품 진출 시도
 - 스페인의 경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PB 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 예상
 - 따라서 가성비 높은 PB로 유통망 진출이 필요한 시기인데 화장품, 식품 등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 위주로 진출 시도 필요
- 온라인 쇼핑, 홈쇼핑, 아시아 전문점 등 유통 채널 다변화
 - 젊은 층의 온라인 쇼핑 수요를 고려하여 온라인 입점을 적극 추진하되 PC 비중이 높으므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PC에 최적화 필요
 - 스페인 노년층의 경우 아직 홈쇼핑 구매가 많고, 한국 식품은 아시아 전문 슈퍼마켓에서 많이 소비되므로 이들 채널을 통한 진출도 유망

⑥ 제3국 공동 진출

(건설업) 한-스페인 모두 건설업 경쟁력이 높아 제3국 공동 진출 유망

- 2017년 EN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건설 시장 국가별 순위에서 스페인 2위, 한국은 6위 기록
 - 2017년 세계 상위 250대 건설기업(해외매출액 기준) 중 스페인 기업 수는 총 11개로 총 590억 달러의 매출 기록

- 스페인의 주요 진출국은 미국과 중남미이며 한국의 주요 진출국은 중동과 아시아로 서로 상이하여 상보관계 성립
 - 2017년 외국기업 중 스페인 기업이 미국, 중남미 건설 시장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비중은 각각 30%, 28.6% 차지
 - 2017년 외국기업 중 한국 기업이 중동, 아시아 건설 시장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비중은 각각 13.9%, 7.9% 차지
- 양국 기업이 협력하여 제3국 진출한 사례도 다수 있음
 - 2015년,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는 삼성물산과 협력하여, 1조 5천억 원 규모의 캐나다 싸이트-씨 댐 건설 프로젝트 수주
 - 2016년 스페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Tecnicas Reunidas)는 삼성물산과 협력, 영국 바이오 매스 발전소 공사 수주
 - 2018년, 스페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Tecnicas Reunidas)는 대우건설과 협력, 오만의 정유 시설 공사 및 가동 프로젝트 수주

(중개무역) 스페인, 제3국에서 수입, 중남미로 수출하는 중개무역 발달

- 중남미 바이어의 수요에 직접 대응이 힘든 ‘직수출 사각지대’ 존재
 - 중남미로부터 오퍼를 받고도 리스크로 인해 수출 포기 사례 발생
- 스페인은 언어적 동질성, 역사적 관계로 중남미와의 거래가 활발하고, 현지 지사를 가진 경우가 많아 제3국을 통한 중개(중계)무역 발달
- 스페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중남미로 수출하는 제3자 거래 유망
 -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개 무역 사례가 많은데 K사는 한국 노후차가 많은 쿠바를 중심으로 중개무역 중이며 A사는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쿠바, 도미니카 바이어 대상으로 중계 무역

(협력 방안) 한-서 양국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제3국 진출 확대

- 세계 건설 시장에서 양국의 강점을 상호 보완하는 Win-Win 전략 구사
 - 양국 모두 건설업이 발달해 있는 가운데 ‘경쟁력’과 ‘주요 진출국’, ‘강점 분야’ 등은 상이하여 양국기업이 상호 협력 시 Win-Win 성립

분류	비교우위	주요 진출국	강점 분야
한국	가격, 기술	중동, 아시아	플랜트, 인프라, 제조공장
스페인	시공, 품질	북미, 중남미, 유럽	수처리, 신재생, 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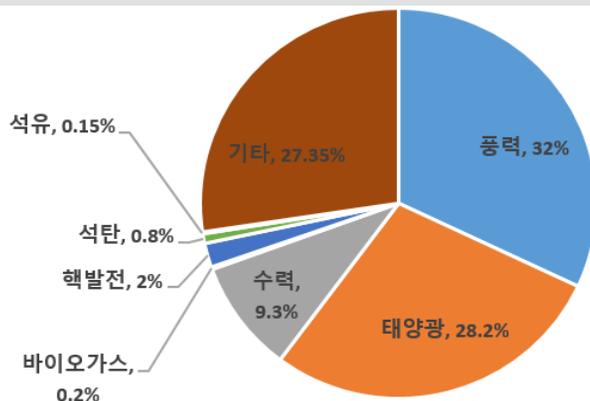
- 스페인 주력시장인 중남미에서 중국의 수주가 확대되고 수처리, 철도 등 강세분야에서 경쟁이 격화되어 스페인 기업 전략적 파트너십 모색
- 북미에서 스페인이 강세를 보여 왔으나, 향후 지속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경험이 필요
- 한국업체-스페인 중개기업-중남미 바이어 간 중개(중계) 무역 추진
 - 중남미 기업과의 거래에 익숙한 스페인 기업을 통해 리스크 헷지
 - 중남미 바이어의 스페인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활용하여 시장 확대

다. [B2G]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스페인 현황) 80년대부터 신재생 도입,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보유

- 스페인 정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시작
 - 1980년, 에너지 절약 및 규제에 대한 법령 82/190을 제정
 - 1985년, 스페인 정부는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시작
 - 1986년, 유럽 연합 가입 후, 환경 개선 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1997년, 스페인은 종합적인 신재생 정책인 “2000~2010 국가 신재생에너지 계획(Plan Energia Renovable 2000~2010)” 수립
 - 1998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력 시장을 도입하고, 에너지 공급 안전성에 대한 법령 제정
- 2019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2021~2030 국가 신재생에너지계획”을 발표
 - 2030년까지 총소비전력의 42%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 온실 가스 21% 감축을 목표. 특히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추진 예정

2030년, 스페인 에너지원 발전량 비중 목표



자료 : 스페인 환경부

- 2018년 기준 총소비전력의 약 17%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완료
 - 정부는 해당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2021~2030년까지 공공·민간을 합쳐 약 236,124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
- Bloomberg NEF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규모는 세계 8위, 유럽 3위 기록
 - * 상위 10개 투자국(단위 백만 유로) : 1위 중국(100,100), 2위 미국(64,200), 3위 일본(27,200), 4위 인도(11,100), 5위 독일(10,500), 6위 영국(10,400), 7위 호주(9,500), 8위 스페인(7,800), 9위 네덜란드(5,600), 10위 스위스(5,500)
- 현재 스페인은 가메사(Gamesa),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악시오나(Acciona) 등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선도 기업을 다수 보유
 - 이베르드롤라(Iberdrola) : 2030년까지 약 42억 유로를 투자, 10,000M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 예정
 - 악시오나(Acciona) : 2020년까지 약 20억 유로를 투자, 2,0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중

(한국 역량)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위해 전방위 노력 중

- 2017년 12월, 산업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10.5%(2022년 목표), 20%(2030년 목표)
-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는 13.3GW(2016년)에서 27.5GW(2022년), 63.8GW(2030년)이며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및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총 110조 원(정부 18조 원, 공기업 51조 원, 민간기업 4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목표 및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태양광 설치 100만 가구, 설비 용량 1GW를 목표 설정
 - '빛, 바람, 물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 구축'을 비전으로 삼은 인천광역시도 2030년까지 시내 전력 수요량의 22%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보급 확대를 위해 다방면 지원 중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추후 3~4년간 약 1,300억 원을 투입 예정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및 상업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조건에 예산의 최대 50%까지 지원

(협력 방안)

- 스페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 스페인은 한국처럼 화석 연료자원이 없는 국가이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안보와 환경개선을 모두 달성 중
 - 스페인의 공공 정책과 민간기업 경쟁력을 조사하여 한국에 반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응, 스페인 신재생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도
 - 정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의지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유럽기술 수준의 약 80%밖에 되지 않아 선진국과 협력 필요
 -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원, 정부육성정책, 우수한 시공능력 등이 합쳐져 90년대 중반부터 신재생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대형 신재생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관심이 높은 편으로 협력 파트너로 적합
-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진출 확대
 - 스페인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 확대 정책으로 관련 프로젝트도 다대
 - 태양광, 풍력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 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이 힘들면, 스페인 현지 기업에게 인수 가능

라. [국민] 양국 국민 간 거리 좁히기

① 인력 교류로 지한파, 지서파 양성

(워킹홀리데이)‘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로 양국 간 교류 기대

- 2018년 10월 24일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됨
 - 워홀 비자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각국 당 연간 최대 1,000명에게 발급
- 현재 한국 청년들은 주로 한인민박집, 한식당, 여행사 등 현지 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됨

(유학생) 스페인의 한국 유학생 수는 유럽국가 중 높은 편

- 최근 3년간 한국 내 스페인 유학생 수는 204명(2016년), 230명(2017년), 216명(2018년)을 기록, 유럽국가 중 6위(러시아 제외)

- 인문사회(69.8%)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학(23.2%), 자연과학(3.9%), 예체능(3.1%)이 뒤를 따름
- 한편 최근 3년간 고등교육기관 한정, 스페인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258명(2016년), 291명(2017년), 315명(2018년)으로 조금씩 증가

(교류방안) 상대국 체류 경험을 지한파, 지서파 배출로 연결

-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한국인 운영 시설뿐 아니라 스페인 현지회사에서도 일 할 수 있도록 스페인 기업 수요 발굴
 - 한국과 교역 관계가 있는 회사나 한국에 투자한 회사 등
- 유학생의 전공 다변화를 위해 양국이 강점을 가진 학문을 적극 안내
 - 스페인 유학생은 인문사회에 집중되어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한국을 IT 기술이 발달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공계도 홍보 필요
-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을 마친 젊은이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한-서 취업포털’ 운영 혹은 ‘한-서 Job Fair’ 개최

2 문화 교류로 상호 호감 확대

(K-Culture) 스페인에서 K-팝, K-뷰티 중심으로 K-Culture 인기

- K-팝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문화원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스페인 K-팝 경연대회’의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는 추세
 -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El País), 스페인 공영 방송 RTVE 등 현지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경연 당일 현장 취재
 - * 온라인 예선에 참가한 팀의 수 : 98개(2017년), 107개(2018년), 191개(2019년)
- 스페인 현지 K-팝 팬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스페인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K-팝 아티스트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혁오밴드, 블랙핑크 공연 완료, 갯세븐도 공연 예정
- 또한 매력적인 패키징, 천연 성분,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운 한국 화장품이 스페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음
 - 프리모르(Primor), 세포라(Sephora) 같은 전문점이나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 같은 백화점에서 한국 화장품 코너 운영

(스페인 붐) 한국에서 스페인 여행, 스페인 음식 등 스페인 Boom 확산

- ‘꽃보다 할배’, ‘윤식당 2’,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스페인 하숙’ 등 스페인을 다룬 다양한 TV 프로그램이 히트하면서 국민들의 스페인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왔음
- 최근 3년간 스페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31.2만 명(2016년), 44.6만 명(2017년), 49만 명(2018년)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 최근 3년간 방문객 수는 2010년(4.3만 명)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대한항공에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직항을 운행 중이며 아시아나항공도 바르셀로나 직항을 운영, 한국인 관광객 증가에 일조
- 한편 파에야, 타파스, 추러스, 샹그리아를 비롯한 스페인 음식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흑돼지 이베리코 수요가 폭증

(교류방안) 교류 분야를 다변화하여 문화를 통한 교감 기회 확산

- 스페인에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많으므로 스페인 현지에서 한국 전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스페인은 미술관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한국화 특별전 개최 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경쟁사회에서 오는 피로감을 동양적 명상에서 찾으려는 인구도 많으므로 한국 불교 체험도 좋은 반응이 예상됨
- 스페인은 문화유산이 풍부한 국가이나 일부 지역, 일부 장르만 화제가 되고 있으므로 더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필요
 - 스페인 음식은 북쪽 지역(바스크, 나바라 등)이 가장 발달되어 있으므로 서울식품전 등에서 북부 음식을 중심으로 한 특별 시식회를 개최하는 방안 추천
 - 스페인은 중세부터 현대에 걸쳐 뛰어난 미술가를 많이 배출했고, 플라멩코라는 독특한 음악을 보유하고 있는 바 스페인문화 주간 등을 기획하는 것도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

주요 협력 분야별 기회 및 Key Player 요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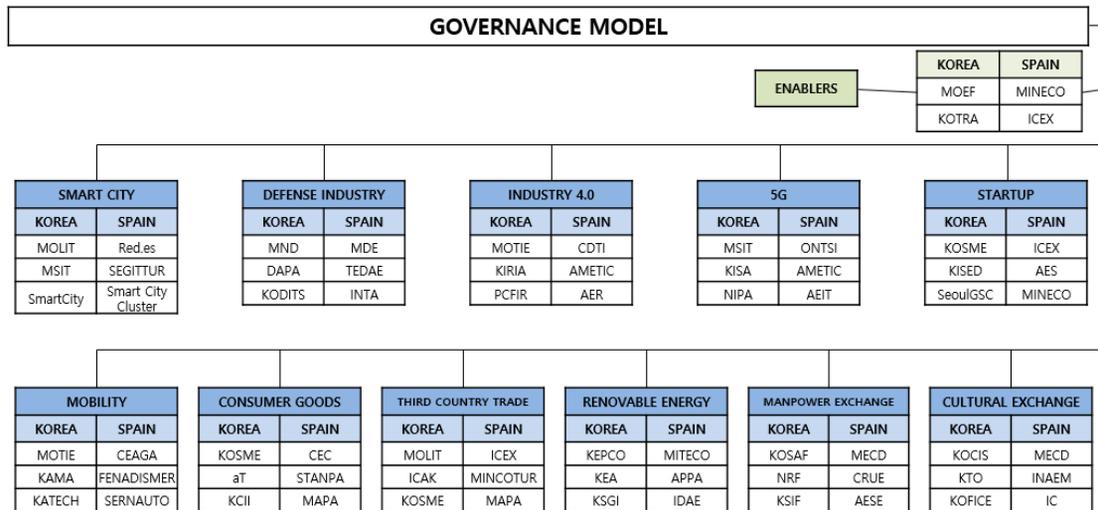
구분	협력방안	분야	관련 협력 기회	
			참여주체(한국)	참여주체(스페인)
			관련기관(한국)	관련기관(스페인)
			세부 추진 내용	
[G2G]				
1	스마트시티를 넘어 스마트국토 구축	스마트시티	KT, LG CNS, SK 텔레콤	Telefonica, Vodafone, Indra
			국토부, 과기정통부	Red.es, Segitt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정책 교류 및 프로젝트 상호 참여로 우수 사례 벤치 마킹 - 스마트팜 공동개발 및 스마트관광 기술 교류 	
2	방위 산업 협력 강화	방위 산업	KAI,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Airbus, Indra
			국방부, 방위사업청, Kodits	MDE, Teda, IN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육군 산업이 덜 발달, 육군 장비 수출이 유망 - 스페인은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 양국 간 차세대 항공기 공동 연구 	
[B2B]				
3	4차 산업혁명 대응	4차 산업 혁명	KT, SK텔레콤, LG전자	Telefonica, Indra, Seat
			4차 산업혁명위, 로봇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CDTI, AMETIC, A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와 같이 스페인에서 스마트팩토리 도입이 유망한 분야 위주 협력 - 스페인 혁신기업연합과 협력을 통해 스페인 디지털 프로젝트 참여 	
4	5G 선도국 진입	5G	KT, SK텔레콤, LG텔레콤, 삼성전자	Telefonica, Vodafone, Celnex
			인터넷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O?NTSI, AMETIC, AE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한발 앞선 경험을 레퍼런스로 신뢰도 고양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진출로 유럽 편향 구도 돌파 	
5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스타트업	SK플래닛, 롯데액셀러레이터, 매쉬업엔젤스	Telefonica, Iberdrola, ISDI
			중진공, 창업진흥원, 서울글로벌창업센터	ICEX, Madr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현지 창업으로 Born European 스타트업 지향 - Telefonica, Iberdrola, Repsol 등 스페인 대기업 CVC 프로그램 활용 	
6	차세대 모빌리티 선도	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LG화학	SEAT, CEAGA
			산업부,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연구원	FENADISMER, SERNAU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파트너링으로 맞춤형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 스페인 자동차 클러스트에 투자진출 	
7	소비재 교역 확대	소비재	아모레퍼시픽, CJ 제일제당	Corte Ingles, Primor, Mercadona
			중진공,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장품산업연구원	CEC, STANPA, MA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de in Korea'를 넘어 'Made by Korea'로 브랜드 가치 상승 - 온라인 쇼핑, 홈쇼핑, 아시아 전문점 등 유통 채널 다변화 	

구 번	협력방안	분야	관련 협력 기회	
			참여주체(한국)	참여주체(스페인)
			관련기관(한국)	관련기관(스페인)
			세부 추진 내용	
8	제3국 공동 진출	건설·자동차	대우건설, 삼성물산, 자동차 부품 Tier1,2	Tecnicas Reunidas, Acciona, 자동차 부품 수입기업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중진공	ICEX, MINCOTUR, MAPA
			- 한서 모두 건설업이 발달해 있어 상호 주력시장에 공동 참여 추진 - 중남미 기업과 거래에 익숙한 스페인 기업을 활용, 대(對)중남미 중개무역 확대	
[B2G]				
9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신재생 에너지	한화에너지, GS건설, 5개 발전공사	Iberdrola, EDPR, Acciona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MITECO, APPA, IDAE
			- 정부의 신재생 도입 정책에 대응, 스페인 신재생 기업 투자유치 - 스페인 신재생 프로젝트 인수로 스페인 시장 진출	
[국민]				
23	인력 교류로 지한파, 지서파 양성	인력 교류	국내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스페인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세종학당	MECD, CRUE, AESE
			- 한서 대학별 DB 및 장학제도 등 정보를 종합, 양국 학생 대상 유학 상담 - 유학 후에는 현지창업이나 취업 알선	
24	문화 교류로 상호 호감 확대	문화 교류	SM, JYP, CJ E&M	Grupo Restalia, B the Brand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MECD, INAEM, IC
			- 스페인에서의 K-Pop 인기를 반영, K-pop 공연 및 영화제 추진 - 스페인 여행 및 음식 인기를 반영, food festival 및 관광홍보전 개최	

III. 향후 對스페인 K패키지 실행체계(안)

한-스페인 경제공동위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한-스페인 경제공동위는 격년 개최로 2018년 서울에서 6차 개최
- Sub분과도 만들어, 분야별 트러블 슈팅, 신규과제 발굴, 실행력 제고
- * 양국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두가 되는 거버넌스 스킴



KOREA

- aT : Korea Agro-Fisheries&Food Trade Coporation
- DAPA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ICAK :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 KAMA :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 KATECH : 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
- KCII : Foundation of Korea Cosmetic Industry Institute
- KEA : Korea Energy Agency
- KEPCO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 KIRIA : Korea Industry For Robot Industry Advancement
- KISA : Korea Internet&Security Agency
- KISED : Korea Institute of Startup&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KOCIS : Korean Culture&Information Service
- KODITS : Korea Defense Industry Trade Support Center
- KOFICE :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 KOSAF :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 KOSME :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 KSGI : Korea Smart Grid Institute
- KSIF :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KTO : Korea Tourism Organization
MND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OLI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TI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SI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IPA :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RF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PCFIR :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oulGSC : Seoul Global Startup Center
SmartCity : Smart City Association

SPAIN

AECID :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ECOC : Spanish commercial coding association
AEIT : Spanish Association of Engineers of Telecommunications
AER : Spanish Association of Robotics and Automation
AES : Startups Association of Spain
AESE : Spanish Association of Employment with Support
AMETIC : Association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Telecommunications and Digital Content Companies
AMETIC : Association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Telecommunications and Digital Content Companies
APPA : Association of Renewable Energy
CDTI :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CEAGA : Galician Automotive Cluster
CEC : Spanish Confederation of Commerce
CRUE : Conference of Rectors of Universities
DGT : Directorate-General for Traffic
FENADISMER : National Federation of transport associations of Spain
IC : Cervantes Institute
ICEX : Spain Trade and Investment
IDAE : Institute for Energy Diversification and Saving
INAEM : National Institute of Performing Arts and Music
INTA : National Institute of Aerospace Technology
MAEUEC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uropean Union and Cooperation
MAPA :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DE : Ministry of Defence
MECD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
MINCOTUR :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tourism
MINECO : Ministry of Economy and Business
MITECO : Ministry of Environment
MSCBS : Ministry of Health, Consumer Affairs and Social Welfare

ONTSI : National Observatory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formation society

Red.es : Public Company of the Ministry of Economics and Business

SEGITTUR : State Corporation for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ourism Technologies

SERNAUTO : Spanish Association of Automotive Suppliers

Smart City Cluster : Innovative Multisectorial Business Association for Smart Cities

STANPA : National Perfume and Cosmetics Association

TEDAE : Spanish Association of Technological Companies of Defense, Aeronautics, Security and Space

② KOTRA를 한-스페인 비즈니스 허브로 활용, 양국 간 상시 협업

- 물리적으로는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에 유관기관 입주, 원루프로 운영
- 스페인 유관기관의 대(對)한국 협력수요는 마드리드 무역관이 접수하여 적합 유관기관 혹은 기업과 매칭 역할 수행
 - 한국 기업이나 유관기관의 대서(對西) 협력수요는 KOTRA 본사 통해 진행

③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숲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향후 한-서 정상 회담 시 K패키지 내용을 공동성명 형태 발표
 - * 양국 정부 부처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병행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강명재	부장	마드리드무역관	(0034)91-556-6241	ma6n@kotra.or.kr
2	홍영선	현지	마드리드무역관	(0034)91-556-6241	youngsun_hong@kotra.or.kr

KOTRA자료 20-043

2020 국별 진출전략 **스페인**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89-0(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